

시민이 행복한
동북아 해양수도 부산

대한민국의 백년지대계 동남권 관문공항이 답입니다!

☺ 장애물 없이 안전한 공항

🕒 소음피해 없이 24시간 운영되는 공항

↔ 미래수요에 대응하는 확장성 있는 공항



부산광역시
BUSAN METROPOLITAN CITY

부산체육
2020 05+06 Vol. 25

2020. 05+06
Vol. 25

부산체육

Busan Sports Council Magazine



Perfection Point

최고의 기록

인간의 한계가 만들어내는
최고의 기록



부산광역시체육회

부산광역시체육회
BUSAN SPORTS COUNCIL

발행일 2020년 6월 15일(격월간, 비매품, 통권 제25호)
 발행인 부산광역시체육회장
 편집인 김동준 편집취재 문찬식, 김성무, 하나근
 발행처 부산광역시체육회
 부산광역시 동래구 사직로 77(T. 051-500-7900)
 디자인기획 대훈기획(T. 051-898-0330)

표지기사 COVER STORY



PERFECTION POINT 최고의 기록

축구나 배구에서 수비수의 역할은 상대의 공격을 차단하는 것. 상대 선수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해 자기 편 공격으로 연결되도록 하는 일. 스파이크를 날려 공격하는 공격수만큼 수비수나 세터에게 돌아가야 할 건 바로 그들만을 위한 스포트라이트.



스포츠, 삶을 말하다

04 프롤로그

06 잠재력 가득 스피릿

오롯이 내 페이스대로, 강심장은 나의 무기!
 부산광역시체육회 사격팀 박대훈 선수

10 특독동호회

2019년 슈퍼컵 우승팀 연산배구클럽

Hot Issue

14 코로나19 사태 뚫고 조심스레 프로 스포츠 개막

스포츠 전국 투어

18 "으라차차~" 씨름의 희열, 창원을 가다



스포츠, 깊이를 보다

스페셜 특집

- 22 해양수도 부산, 해양레저와 스포츠 문화
- 26 강렬한 여름, 찬란한 바다, 환상적인 서핑

이슈 & 포커스

- 30 코로나19 특별성금 모금 전달식 개최
- 32 BNK저축은행 근대5중경기 여자팀 지원 협약식
- 33 2020 임시대의원총회 개최

34 부산체육의 발자취

건강IN 헬스A

- 36 식생활 개선만이 해답! 역류성식도염

중인 스포츠

- 40 각본 없는 드라마! 지구촌 최대 축제, 축구!

문화 스펙트럼

- 44 축구와 배구 관련 책과 영화



스포츠, 행사를 담다

센터 info

- 46 부산국민체육센터
- 48 북구국민체육센터
- 50 영도국민체육센터
- 52 강서구국민체육센터

체육회 & 단체

- 54 구·군체육회
- 56 부산거점스포츠클럽

57 단신 뉴스



S

Perfection Point



또 하나의 우주, 공 하나에 목숨 걸고 뛰는 선수들

이긴 팀 선수들은 열싸안고 그라운드를 뛰어 다니고, 진 팀 선수들은 아쉬움 가득해 눈물을 흘린다. 공 하나에 목숨을 건다. '스포츠는 전쟁의 대용물'이라는 말이 있다. 인류는 전쟁을 대신해 스포츠를 만들어 냈다. 공은 우리에게 또 다른 우주를 선사한다. 공은 폭력을 증재하는 평화의 도구다.

T

S

Interview

오롯이 내 페이스대로, 강심장은 나의 무기!

럭비선수였던 아버지의 피를 이어받아 운동에 남다른 소질을 보인 부산광역시체육회 사격팀 박대훈 선수는 중학생 시절, 사격부 선생님이 총 한번 쏘보라고 했던 게 '사격 인생'의 시초였다고 한다. 부산 북구 덕천동에서 태어난 박대훈 선수는 경남 창원 의봉림중학교에서 처음으로 사격을 접한다. '평평' 답답한 가슴이 뚫릴 듯한 시원한 총소리, 이거다 싶었다고. '사격'은 그렇게 박대훈 선수의 마음을 사로잡았고 동년배를 능가하는 그의 끈기와 근성은 사격부 코치의 마음에 쏙 들었다.



한국 사격판의 대형 유망주,
부산광역시체육회 사격팀 박대훈 선수

자신과의 싸움, 멘탈 스포츠 사격은 내 인생



지난 2018년 10월 12일 전북 일원에서 성대하게 막 오른 제99회 전국체육대회는 한국 사격의 차세대 스타 박대훈이 대회 3관왕에 오른다. 10월 13일 열린 남자 일반부 공기권총 50m에서 우승한 데 이어 14일에는 남자 대학부 공기권총 10m 단체전과 개인전을 휩쓸며 대회 3일째 금메달 3개를 목에 건다. 그의 다음 목표는 2020년 도쿄올림픽대회였다. 안타깝게도 세계적인 코로나19 사태로 잠정 미뤄진 상태, 지금 상황이 답답하기만 한 박대훈 선수다.

“모든 운동이 그렇겠지만 특히 사격은 멘탈 스포츠라고 생각해요. 정신을 집중해서 잘 해오다가도 한 순간 마음이 흔들리면 페이스를 잃게 마련이거든요. 결국 자신과의 싸움인 건데, 그만큼 마음 관리를 잘해야만 룰런하는 사격선수가 될 수 있겠죠.”

Profi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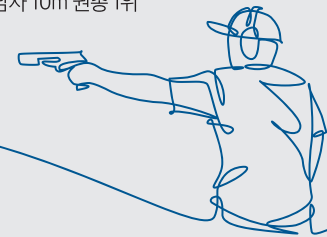


2019

- 제14회 아시아 사격 선수권대회
 - 공기권총 단체2위
 - 50m권총 개인1위
 - 50m권총 단체1위
- issf 월드컵 파이널 대회 공기권총
 - 개인 2위 입상
- 국제사격연맹 베이징 월드컵 사격대회
 - 남자 10m 공기권총 은메달
- 제30회 나폴리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사격
 - 혼성 10m 공기권총 은메달
 - 남자 10m 공기권총 금메달

2015

- 제28회 광주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사격
 - 남자 10m 공기권총 단체전 금메달
 - 남자 50m 권총 단체전 금메달
 - 남자 50m 권총 개인전 금메달
- 국제사격연맹 창원 월드컵 사격대회
 - 남자 50m 권총 은메달
- 세계대학생사격선수권대회
 - 남자 50m 권총 2위
 - 남자 10m 권총 1위



3~4시간 잠을 자고 새벽 5시 50분 버스에 오른다. 오전 수업을 받고 점심을 먹은 뒤 오후 2시부터 밤 10시까지 강도 높은 훈련이 이어진다. 고등학교 2학년 말 국가대표로 선발됐다. 사격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게 중 1 때니까, 친구들과 제대로 놀아보지도 못하고 청소년기를 보냈다. 집안 사정이 좋지 않아 운동을 관두고 아르바이트라도 해야 되겠다 싶을 때도 있었다. 그를 붙잡아준 건 부모님, 포기하지 말고 운동에만 전념하라고 하셨다. 그때 만약 관뒀더라면 오늘의 영광을 보지 못했을 터, 마음이 괴로울 때마다 더 혹독하게 훈련에 매달렸다는 박대훈 선수.

“시합 때 연습시간 15분가량을 주고 75분 내에 60발을 쏘야 해요. 다리도 아프고 집중을 해야 하니까 눈도 피로하고 컨디션이 안 좋으면 더 쉽사리 무너지게 되죠. 그렇게 한 번 흔들리면 다시 본래 페이스를 찾기 힘들어요. 훈련을 오래 하다 보면 75분을 어떻게 끌어가며 경기를 풀어갈 지 감(感)이 잡혀요. 실수를 거치면서 제 단점을 보완하는 거죠. 그간의 노력이 결실을 본 건 99회 전국체육대회였어요. 사실 대회 일주일 전에 코를 다쳐서 경기를 포기하려 했는데 대회 3관왕이라는 좋은 성적을 거둬 부모님도 많이 기뻐하셨고 저 역시 동기부여가 컸고요. 2020년 도쿄올림픽대회만 바라보면서 훈련했는데 속상할 따름이에요.”



무대를 즐길 줄 아는 자신감, 사격선수로서의 최강점



지난 2014년 10월, 제5회 세계대학생사격선수권대회에서 10m 권총 1위, 50m 권총 2위를 기록한 박대훈 선수는 2015년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에서 3관왕에 오르며 차기 진종오 선수의 대를 이를 우수선수로 주목 받는다. 2015년 쿠웨이트에서 개최된 제13회 아시아사격선수권대회에서 세계주니어 신기록을 수립하며 2관왕에 올랐다. 2018년 8월, 경남 창원에서 개최된 제52회 세계사격선수권대회에서는 50m 권총 종목 국가대표로 참가해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사격은 박 선수가 말했듯이 멘탈이 중요한 스포츠인데 박 선수가 걸보기에는 수줍음도 많고 내성적일 거 같은데 경기장에 가서 시합에 들어가면 그 순간을 제대로 즐기는 편이예요. 자신에게 쏠린 관심이 클수록 플러스알파 에너지가 나온다고요? 운동선수로서는 정말 큰 장점이지요. 대개 경기를 하면서 긴장해서 기량을 백분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박 선수는 경기장에 들어서면 관중을 한번 짹 훑어보면서 마인드 컨트롤을 해요. 그 표정이

마치 ‘여러분, 제가 우승할 테니 눈 똑바로 뜨고 잘 지켜주세요!’ 하는 거 같다고요. 멘탈 부분에서 다른 사격선수와는 다른 탁월함이 있는 거죠.”

사격선수로 활약하다가 코치 생활을 오래한 권영희 감독이 동명대학교에 온 건 2016년, 권 감독이 박 선수를 주목한 건 그 남다른 여유, 집중력, 쇼맨십 등이었다. 다른 운동의 경우 체력적인 기량을 한껏 끌어올려 발산한다면 사격은 1시간 반가량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으며 긴장과 불안을 넘어서는 과정을 거친다. 6~7년 전까지만 해도 고요한 가운데 경기가 치러졌지만 지금은 달라졌다. 조용한 클래식부터 신나는 댄스음악까지 장르를 구분하지 않고 시합장처럼 훈련장에도 늘 음악이 흘러나온다. 시끄러운 속에 구애받지 않고 자신만의 페이스를 펼쳐야 하는 사격, 게다가 관중석까지 정신 없기는 매한가지. 박수를 치고 소리를 지르는 건 예사, 부부젤라까지 가세하면 그야말로 북새통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평정심을 찾는 사격 선수들, 무표정하고 진지한 표정과 몸짓으로 시간을 계산하며 중심을 잡아 경기에 몰입한다. 최종 승자는 흔들림 없이 제 페이스를 넘어 한발 한발 과녁 중심에 다다른 이의 것.

시끄러움 속에 구애받지 않고 자신만의 페이스를 펼쳐야 하는 사격



66 매 경기 다른 선수의 기록은 의식하지 않고 오직 자신의 페이스대로 경기를 이끌어가는 탄탄한 심장의 뒷배는 역시 여한 없을 만큼 최선을 다했다는 자신감 때문이 아닐까. 99

마인드컨트롤에 능한 자기관리에 탁월한 선수로



한국 사격의 대표 유망주로 손꼽히는 박대훈 선수, 그의 롤모델은 누굴까. 올해 33세인 이대명 선수라고 했다.

“운동을 하는 과정에서 저도 종종 흔들렸어요. 집안 사정이 어려울 때도 그랬고 친구들과 놀지 못한 게 억울하기도 했고요. 부모님도 마음 아파하면서 끝까지 응원해주셨고 여기 권영희 감독님도 계시지만 창원에 계시는 김태은 코치님도 제가 흔들릴 때마다 다잡아준 스승이세요. 이대명 선수처럼 긍정적인 에너지를 퍼트리는 선수로 기억되고 싶어요. 몸에 배인 배려심, 특히 후배들을 잘 챙겨주는 따뜻함은 꼭 본받고 싶어요.”

사격은 러시아와 중국이 강세라고 했다. 어떤 스포츠든 자기 관리를 철저히 해야만 통련하는 선수가 될 수 있다고, 사격의 경우 마흔 중반에서 후반까지 선수로 활약하는 이들도 꽤 있다. 박대훈 선수 역시 오래 활약하는 선수로 기억되고 싶다. 이후 기회가 주어진다면 코치나 감독 지도자의 길을 갈 생각이다.

“시합 전에 마음이 안 잡히면 차에 가서 음악을 크게 틀어놓고

노래를 불러요. 아니면 반신욕을 하면서 무념무상(無念無想)의 마음가짐으로 땀을 빼죠. 그렇게 30분 정도 시간을 보내면 답답했던 마음이 잡혀요. 훈련에 집중해야 하는 터라 많은 시간을 낼 수는 없고 제가 고안한 나름의 스트레스 해소법이랄까요. 잘 먹고 잘 자고 스트레스를 그때그때 푸는 것, 특별하진 않지만 제 나름의 비법이랍니다.”

매 경기 다른 선수의 기록은 의식하지 않고 오직 자신의 페이스대로 경기를 이끌어가는 탄탄한 심장의 뒷배는 역시 여한 없을 만큼 최선을 다했다는 자신감 때문이 아닐까. 그가 들려줄 다음 승전보가 기대된다.



2019년
슈퍼컵 우승팀 연산배구클럽

“팡! 팡! 리시브~ 토스~
강 스파이크!”

World Receive



2007년 창단된 연산배구클럽, 남녀 혼성팀으로 회원은 총 56명에 이른다. 연령대는 20대부터 50대에 이르기까지 다양하지만 20~30대가 주축을 이룬다. 이른 아침부터 김해 연습장에 모인 이들은 생기가 넘쳤다. 학창시절 배구선수 경험이 있는 이들은 5%에 불과, 열정만큼은 '선수'에 뒤지지 않았다. 평소 배구 관람을 즐겼거나 인기 배구 만화 '하이큐'를 보고 배구 매력에 빠져 연산배구클럽과 연(聯)을 맺은 그들, 짹 손뼉을 뺨고 몸을 날려 공을 치고받으며 외친다. “리시브! 토스! 스파이크!”



배구로 만나 가족처럼 끈끈하고
친근한 관계로 발전

“원래 매주 화, 목요일 저녁 7시에서 9시까지 연산초등학교 연습실 대관을 해서 연습을 했어요. 남, 여 혼성으로 레슨과 연습경기를 진행하기 때문에 인원이 꽤 돼서 공간이 커야 하거든요. 코로나19 사태 이후 2개월 정도 휴식기를 가졌다가 지난 4월부터 대관비가 4배나 더 비싼 김해 연습장을 빌렸죠. 여긴 공간이 비좁아 매주 화, 토요일 남, 여로 나눠 연습하고 있어요. 손소독제를 비치해 놓고 발열체크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중학생 때 배구선수 경험이 있는 이광호 감독의 현업은 엔지니어이다. 자원봉사로 연산배구클럽을 맡은 지 1년째다. 회원들 직업도 다양하다. 가정주부를 비롯해 대학생, 회사원, 교직원 등 사회생활을 하며 배구동호회 활동으로 무료한 삶에 활력을 찾는 이들도 있다. 연산배구클럽의 부회장 유선화 선수는 연산배구클럽이 자기 삶의 98%를 차지한다고 말했다.

“배구를 해보고 싶어 가입했지만 사람들과 너무 친해져서 시간 날 때마다 만나요. 등산도 가고 쇼핑도 가고 같이 밥도 먹고... 만나는 사람 대다수가 연산배구클럽 친구들이예요. 저도 이렇게까지 연산배구클럽이 제 삶에서 차지하는 부분이 크게 될 줄은 몰랐어요.”

그래서일까. 기량이 저마다 다른 회원들의 힘이 마음만큼이나 잘 맞았고 생활스포츠로 즐긴 터라 경기 승패에 연연하지 않았음에도 경기 결과는 좋은 편이었다.



“
사회생활을 하며
배구동호회 활동으로
무료한 삶에 활력을
찾는 이들
”



공격수, 수비수 포지션 배치 완벽, 실력 좋은 선수들 포진

“아무래도 서로에 대한 믿음이 컸던 게 좋은 결과로 이어지지 않았나 싶어요. 배구라는 종목 자체가 개인 역량보다는 팀플레이가 더 중요해서 오랜 시간 연습을 거쳐 서로의 장단점을 파악하고 여러 대회를 거치면서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온 거죠.”

선수들 포지션 배치도 잘 돼 있고 부산에서 가장 실력이 좋은 선수가 연산배구클럽에 소속돼 있는 것도 2019년 여자슈퍼컵 우승팀으로 이끈 요인이 아닐까 싶은 이 감독, 그가 최고라고 손꼽은 선수는 초등학교 때 선수생활을 한 올해 25세 반예림 씨. 반예림 선수의 언니인 박예진 선수도 함께 연산배구클럽에서 활동중이다. 2007년 연산배구클럽 창단 때부터 함께 해온 최옥금 선수는 연산배구클럽을 탄탄하게 지키는 버팀목 같은 존재다. 올해 29세 유선화 부회장은 젊은 세대와 나이든 세대의 중간 다리 역할을 하는 분위기 메이커로 유연성이 남다르고 공격수답게 스피드도 좋으며 이 감독의 회원 자랑이 끊이지 않았다.

연산배구클럽 역대 전적



- **2016년**
21회 부산시장배 여자 3위
- **2017년**
22회 부산광역시 종별선수권대회 여자 3위
2017 부산광역시 배구협회장배 여자 우승
27회 부산광역시장배 비치발리볼 클럽3부 여자 우승
- **2018년**
23회 부산광역시 종별선수권대회 여자 우승
23회 부산광역시배 여자 준우승
- **2019년**
29회 부산광역시배 비치발리볼 클럽3부 여자 우승
2019 부산광역시 배구협회장배 여자 3위
2019 부산광역시장배 여자 슈퍼컵 여자 우승

“아무래도 가장 기억에 남는 경기가 2019년 여자슈퍼컵 경기였죠. 하루 이틀 끝나는 경기가 아니라 몇 달간에 걸쳐 장기적인 경기 일정을 소화했기 때문이죠. 최종 결승에서 배사랑클럽과 만났는데 대다수가 체육선생님들로 구성된 배구클럽이었어요. 저희보다는 연습시간도 많았고 배구 경험이 많은 체육선생님들이 포진해 있어 저희가 이길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죠. 그런데 연습한 대로 실전에서 긴장하지 않고 플레이에 집중하다 보니 2대 0으로 이긴 거예요. 15개 배구공을 상품으로 주시더라고요.(웃음).”

배구 경기를 할 때 기본은 ‘단합’이라고 방점 찍는 이 감독, 자신은 공격과 리시브, 세트의 단합력을 늘 염두에 뒀을 뿐, 회원들 각자가 서로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며 다독여주는 분위기를 만들어갔다고 했다. 경기 중에 실수가 나오더라도 상대를 탓하지 않고 오히려 더 ‘파이팅’을 외치며 분위기를 쇄신했다. 끝까지 경기를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했던 순간이 차곡차곡 모여 오늘의 연산배구클럽을 만들었다며 모든 공을 회원들에게 돌리는 그다.



배구로 제2의 인생을 시작한 연산배구클럽 회원들

몇몇 회원들에게 ‘배구는 내게 00대’라는 질문을 던졌다. 한 회원은 ‘배구는 심장이야’라고 답했다. 공이 언제 내게로 올지 몰라 긴장되고 승부가 나는 순간이 짜릿해서 ‘배구’를 할 때마다 쿵쿵대는 심장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이라고. 또 다른 회원은 배구는 ‘퍼즐’이라고 말했다. 팀원 중에 한 사람만 빠져도 그 빈자리가 아쉽고 다 같이 맞춰나가는 과정이 힘들기 때문. 하지만 퍼즐을 완성하면 그만큼 성취감도 없다고 덧붙였다. 배구는 ‘만남의 광장’이라는 답한 회원도 있었다. 운동을 하며 얻는 즐거움도 크지만 사람들을 만나면서 삶의 활력을 찾고 나날이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기 때문. 또 배구는 ‘여행’이라고 답하기도 했다. 배구를 하면 여행하는 것처럼 두근거리고 설렘을 주니까.

연산배구클럽이 품은 단기적, 장기적 목표는 무엇일까? 단기 목표가 남, 여 전국대회에서 동반 우승하는 것이라면 장기 목표는 그야말로 멀리 내다본 계획들이다. 2100년까지 연산배구클럽을 유지하는 것, 연산배구클럽 구단 버스를 구매하는 것, 그리고 연산배구클럽 단독 체육관을 건립하는 것, 또한 연산배구클럽 후원 기업을 유치하는 것 등이다. 마지막으로 이 감독이 들려준 얘기가 귓전에 맴돌았다. 타 지역에 비해 여성 회원이 참가할 수 있는 배구 대회가 너무 적은 게 현실, 부산 지역에서 2개 대회 정도뿐이라고 했다. 여성 회원들이 참가할 수 있는 배구 대회가 많이 늘어났으면 하는 소망, 곧 이뤄지길 기대해본다.



코로나19 사태 뚫고 조심스레 프로 스포츠 개막

프로축구 개막 이후 바뀌게 된 세 가지 스포츠 습관

줄곧 신중한 태도를 취한 한국프로축구연맹은 코로나19 사태가 완화되면서 실외체육시설에서의 행사나 스포츠 관람은 무관중이나 소규모 경기로 점진적으로 시행하기로 결정하며 개최를 추진한다. 이로써 계약 없이 개최만 기다리며 애를 태우던 구단들과 팬 모두 한숨을 돌렸다. 물론 코로나19가 완전히 종식되지 않은 상황이지만 올 시즌 K리그는 여러모로 예전과 달라진 모습이다. 일단 스케줄이 바뀐다. 개최전 대진은 유지된다 해도 일정 자체가 축소된 만큼 세부적인 경기는 조정이 불가피하다. 또 개막 후에도 당분간은 무관중 경기로 치르고 추후 상황을 봐서 관중 입장을 단계적으로 늘려나가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캐나다의 스포츠 채널인 CTV스포츠는 '코로나19로 인해 바뀌게 된 세 가지 스포츠 습관'으로 침을 빨거나 (공 등) 바르기, 땀에 젖은 수건 관리 그리고 하이파이브를 꺾었다. CTV스포츠는 "크리켓에서 스윙을 장려하기 위해 공에 침을 바르는 버릇, 테니스에서 볼 키즈가 수건을 건네주는 역할 그리고 축구와 농구 등에서 하이파이브 등이 금지돼 있다"고 설명했고 이런 변화는 국내 프로 스포츠에서도 적용되고 있다.



설렘만큼 걱정도 지을 수 없다. 코로나19로 개최가 미뤄졌던 2020프로축구 K리그가 지난 5월 8일(금) 본격적으로 개최했다. 이에 앞서 지난 4월 24일, 한국프로축구연맹은 서울 종로구 축구회관에서 제4차 이사회를 열고 2020 시즌 개막일과 경기 수를 결정하기로 했다. 당초 지난 2월 29일 개최 예정이었던 K리그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일정을 무기한 연기한 지 두 달여 만이다. 프로야구도 예정보다 38일 늦은 지난 5월 5일(화) 개최했다. 무관중 개최전이 처음이다 보니 전에 볼 수 없는 진귀한 장면이 연출됐다.



KBO-LEAGUE



안전이 우선.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

축구는 특히 몸싸움이 심한 종목이다. 선수들끼리 악수를 나누거나 어깨를 토닥이고 끌어안는 등 신체 접촉이 많은 편이다. 그러나 리그가 개최하고 무사히 진행되기 위해선 몸에 밴 습관을 내려놔야 한다. 개최 전까지 악수 등 신체 접촉을 최대한 줄이고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는 방안의 경기 운영 방침이 필요한 이유다. 중계나 취재 환경도 달라질 필요가 있다. 협회는 연습경기를 허용하고 그에 따른 취재 가이드라인을 새로 배포한 이후로도 대부분의 구단은 취재나 대면 인터뷰에 신중을 기하고 있다.

또 비시즌 기간 동안 홈 구장인 스틸야드 일부 구역을 새로 단장한 포항 스틸러스는 아예 기자실에 비대면 인터뷰가 가능한 모니터를 설치하기도 했다. 이런 노력을 바탕으로 점진적인 관중 입장이 허용된다 해도 구단들의 고민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 유관 중 경기 때도 최소 1.5m에서 2m 가량 안전거리를 확보하는 방안을 골자로 한 매뉴얼에 따라야 하는 만큼 지정 좌석을 어떻게 배치해야 할 지 머리가 복잡하다. 시즌권 환불과 경기장 내 스폰서 광고 문제 등도 해결이 필요하다. 팬들도 어느 정도 불편함을 감수해야 한다. 입장 시 문진표 작성과 발열 체크 등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입장 전 사전조치를 유지하고 관중들도 마스크 착용, 서포팅 자제 등 자발적인 참여로 안전수칙을 준수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처럼 여러모로 예전과 다른 시즌을 앞두고 있지만 축구 없는 봄에 지쳐 있던 팬들에게 K리그를 볼 수 있다는 사실이 그저 반갑기만 하다.

유례없는 무관중 프로야구의 개최 속 진풍경

전 세계가 지켜본 무관중 프로야구의 개최! 올해는 어린이날에 맞춰 개최전이 열렸다. 코로나19로 인해 당분간 이렇게 관중 한 명 없는 즉, 무관중 경기가 치러졌다. 그만큼 진풍경이 속출했다. 텅 빈 관중석은 선수들을 응원하는 현수막으로 채워졌고 무관중을 의미하는 '무' 모양의 캐릭터들이 자리를 잡았다. 경기장 전광판도 눈길을 끌었다. 야구장에 가지 못한 팬들이 집에서 응원하는 영상이 소개됐다. 개최전 시구는 어땠을까. 한 어린이가 야구공 형태의 풍선 공 안에 들어가 비대면 시구를 선보였다. 경기 중에 감독 인터뷰를 하는 건 팬서비스 차원에서 새롭게 추가됐다. 관중석은 비었지만 취재 열기는 어느 개최전 보다 뜨거웠다. 특히 전국 5개 경기장에 20개 외신들이 몰려 한국 프로야구 개최에 유례 없는 관심을 보였다. 무관중 경기로 열리는 한국 프로야구가 외신들의 관심을 받은 이유는 코로나19라는 새로운 변수가 등장했기 때문.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를 비롯해 전 세계 프로야구가 코로나19 여파로 중단된 상태지만 한국 프로야구는 타이완에 이어 두 번째로 시즌을 시작했다.

야구 중주국이라는 미국의 스포츠 전문 채널 ESPN이 한국 야구의 개막 첫날 소식을 미 전역에 생중계했다. ESPN은 미국 야구팬들을 위해 특집기사로 구단과 선수 등 자세한 정보까지 전했고, 중계 영상을 본 미국 팬들은 관련 인증샷을 공유하기도 했다. 한국 야구에 쏠린 세계의 시선은 코로나19에 대한 한국식 대응, 즉 K방역에 대한 관심으로 보인다.

코로나19 이전 일상의 행복을 기다리며

한국야구위원회(KBO)는 코로나 사태 속 개최를 위해 고심에 고심을 거듭한다. 선수들과 구단 스태프, 미디어 종사자 등 경기마다 200~300명이 모이는 종목 특성상 '코로나19' 대응 통합 매뉴얼을 두 차례나 발표했다. 지난 4월 21일 무관중으로 연습경기를 시작한 프로야구의 경우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선수들 간의 악수나 하이파이브, 경기 도중 침을 뱉는 행위를 금지시켰다. 선수들은 하이파이브를 하는 대신 박수를 치거나 팔꿈치를 부딪히는 것으로 대신했다. 경기 전후 상대팀 선수들과 자유롭게 대화를 나누던 모습도 사라졌고, 심판과 판독 요원들은 마스크에 장갑을 끼고 비디오 판독을 실시했다.

코로나19가 앓아간 오랜 전 일상에 대한 그리움, 화창한 봄날 저녁 야구장을 물들이던 붉은 노을, 경기장에서 선수들과 함께 호흡하며 목이 터져라 응원하던 추억이 생생하다. 코로나19 사태로 뒤늦게 우리 곁에 찾아온 프로 축구와 야구, 시작은 낯설고 어색했지만 관중석을 가득 메운 팬들을 기다리며 의미 있는 첫발을 뗐다는 평가를 받는 중이다.



“으라차차~” 씨름의 희열, 창원을 가다!

경남 창원시는 1970년대 김성률, 1980~1990년대 이승삼-이만기-강호동으로 이어지는 마산 씨름의 맥을 되살린다. 500억 원을 들여 마산구 서원곡 일대를 '씨름성지'로 조성할 계획이다. 창원시 마산 지역은 천하장사, 일반장사 등을 대거 배출한 씨름의 성지로 불렸다. 씨름의 성지인 마산 부흥을 꺾고 씨름을 지역 대표 문화자산으로 육성해 관광 자원화를 추진키로 계획한 창원시, 한동안 씨름은 침체 국면을 맞았지만 최근 레트로(Retro) 열풍과 함께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K스포츠로 다시 자리매김을 하면서 비롯됐다.



Changwon Ssireum



●● 씨름의 고장, 마산의 화려한 면면의 역사

씨름은 우리나라의 전통적 기예의 하나로 두 사람이 살바나 띠 또는 바지의 허리춤을 잡고 힘과 기술을 겨루어 상대를 먼저 땅에 넘어뜨리는 스포츠로 승부를 결정하는 민속놀이이자 운동경기다. 일제 강점기에도 마산 지역에서 활발히 행해 온 씨름, 광복 직후 결성된 마산 씨름협회는 전마산 씨름대회 등 숱한 대회를 개최했으며 마산 씨름계에서는 전팔용·박명규·배용찬 등이 약 10년간 장사로 통했다. 마산 상고 씨름부는 창단부터 1980년대 전반까지 김성률-이승삼-이만기-강호동 등 수많은 우수 선수들을 배출했다. 1960년대 후반 마산 씨름계가 침체에 빠지려 할 때 김성률 선수가 출현해 전국 씨름계를 10여 년간 평정하면서 마산을 다시 '씨름의 도시'로 소환한다. 그는 1967년 전국장사씨름대회에서 우승한 다음 약 10년간 모래판의 전설을 만들어냈다. 김성률 선수는 탁월한 성적뿐 아니라 상대의 심리를 이용하는 기술 씨름을 창안해 한국 씨름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했다. 그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2004년부터 학산 김성률배 전국 장사 씨름대회가 개최 중이다. 김성률 선수가 전성기를 구가하던 1972년에는 한국 씨름계에 전환점이 된 사건이 일어났다. 그것은 장충체육관에서 대한씨름협회와 KBS가 공동 주최하고 문화공보부가 후원한 제1회 KBS배쟁탈 전국장사씨름대회였다. 그 이전까지 야외 모래판에서 실시되던 경기가 실내 매트에서 진행됐고 3일간의 경기 내용은 KBSTV에서 전국으로 중계 방송해 많은 국민들의 관심을 자극했다. 경기가 열린 장충체육관에는 당시 인기 종목인 구기 종목의 국제대회에서도 관중이 1,000~2,000명 정도였지만 씨름대회가 개최되던 연 3일 동안 1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체육관에는 전국에서 모여든 관중들로 입추의 여지가 없었다.



● ●
힘과 기술이 조화된
씨름판으로 전환,
이만기 시대

마산 씨름을 상징하는 이만기 선수는 체력과 테크닉, 승부근성 등 삼박자를 고루 갖춘 인물이다. 과거 힘이 지배하던 씨름판에서 힘과 기술이 조화된 씨름판으로 전환을 앞당겨 프로 씨름 중흥에 기폭제가 됐다. 연속 기술에 능하고 배지기가 특기인 그는 제2회 천하장사대회에서도 홍현욱을 3대 0으로 제압하며 천하장사 2연패를 달성하며 '이만기 시대'의 기틀을 마련했다. 그는 마침내 1989년 제16회 천하장사대회에서 통산 10번째 천하장사에 오르며 '모래판의 황제'로 우뚝 섰다. 1983년 민속 씨름 출범 이후 1990년 은퇴를 할 때까지 천하장사 10회, 백두장사 18회, 한라장사 7회 등 정규 대회에서만 35개 타이틀을 휩쓸었다. 통산 전적 333전 287승 46패, 86.2%의 승률은 지금껏 깨지지 않는 프로 씨름사의 신화와 같은 기록이다. 이만기보다 선배 중에는 이승삼·구봉석·신영태 등이 있었다. 털보 이승삼은 뒤집기의 명수로 이름을 떨쳤는데 한라장사 세 번, 천하장사 2등을 두 번 차지했다. 그는 같은 현대 소속의 이만기에게 한 번, LA미주 천하장사에서 이봉걸에게 져서 아깝게 천하장사는 차지하지 못했다.



● ●
마산의 명성을 이어
씨름의 성지,
창원으로!



“
두 명의 '천하장사'를 배출
'씨름의 고장 마산'의 명성을
'씨름의 성지 창원'으로
”

이만기와 강호동, 두 명의 '천하장사'를 배출한 경남 창원시는 500억 원을 들여 마산시 서원곡 일대를 '씨름 성지'로 조성한다. 창원시는 지난 2월 18일, '씨름의 성지, 창원' 조성계획을 발표했다. 사업비 450억 원을 들여 씨름 인프라를 확충하고 우리의 고유 스포츠인 씨름 기반을 조정하고 저변을 확산하겠다는 계획이다. '씨름의 고장 마산'의 명성을 '씨름의 성지 창원'으로 이어가겠다는 것. 창원시는 최근 '씨름의 성지 창원' 조성을 위해 1) 씨름 인프라스트럭처 확충, 2) 씨름 진흥 기반 조성 3) 씨름 저변 확대 4) 씨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등 4개 전략을 발표했다. 마산 씨름의 역사적 의미가 있는 서원곡 씨름장은 사업비 150억 원을 들여 지상 3층 4개동, 연면적 1,743㎡의 규모로 리빌딩해 전국 최고의 씨름 전지훈련 메카로 조성한다. 또 전국 최초로 100억 원을 투입해 씨름 역사박물관을 건립할 예정이다.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씨름의 역사, 역대 천하장사 일대기, 유명선수 흉상, 천하장사의 애장품 등을 전시하고 관광객을 위한 씨름 체험시설로 활용할 방침이다. 시는 창원의 랜드마크 역할을 할 수 있는 씨름 전용경기장도 건립해 관광자원화하고, 고유민속·문화공연 등 전통 문화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씨름 전지훈련팀 체력 단련 코스를 10억 원으로 개발해 전지훈련팀을 유치하고 이만기, 강호동 등 천하장사가 훈련한 무학산 등산로를 관광 자원화한다. 창원시는 씨름 진흥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전국 지자체 중 처음으로 씨름 진흥조례를 제정하고 씨름 발전협의회를 설치했다. 특히 지역 내 초·중·고교를 대상으로 한 스포츠클럽 육성, 유소년 선수를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 어린이 씨름왕 대회 개최도 구상 중이다. 이와 더불어 서원곡 씨름장 주변 씨름 특화거리 조성, 서원곡 씨름장 체험관광 상품화, 씨름 스토브리그 개최를 통한 전지훈련팀 유치 등을 통해 관광객 유치에도 적극 나선다. 씨름 세계화와 남북교류를 위한 세계 특별장사전과 북한씨름선수단 초청 친선경기 개최도 추진한다. 또 '마산 씨름 역사 발자취'라는 자료 도서를 발간하고 '씨름의 날' 기념 씨름 대축전 등 다양한 행사를 개최해 씨름을 널리 홍보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창원시는 서원곡씨름장 주변에 씨름 특화 거리 조성, 서원곡씨름장 체험관광 상품화, 씨름 스토브리그 개최를 통한 전지훈련팀 유치 등 창원을 씨름 명소화해 관광객 유치에 적극 나선다. 창원시 허성무 시장은 "창원지역 씨름의 정체성과 상징성을 잘 살려 씨름 본고장의 명성을 회복하고 창원이 씨름의 성지가 돼 경제 부흥을 이뤄낼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SPECIAL + 01

해양수도 부산, 해양레저와 스포츠 문화

글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홍장원 연구위원



부산은 해양수도라고 부르는데 대부분의 국민들이 동의할 것이다. 부산은 국내 최대 규모의 항만 도시이며 해운산업과 수산업 또한 가장 큰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전국 최대 방문객을 자랑하는 해수욕장,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요트경기장과 국제요트대회, 서핑공간 등 해양스포츠와 레저 활동을 이야기할 때도 부산은 전국에서 인지도가 가장 높다.

반면 부산시민이 해양스포츠와 해양레저를 일상 속에서 얼마나 즐기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는 긍정적 답변을 내놓기 쉽지 않다. 프로그가 부산 지역의 대표적인 스포츠문화로 자리 잡고 있는데 반하여 해양수도라고 일컬어지는 부산에서 해양스포츠가 지역 주민에게 호응 받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또한 부산 국제모토쇼가 문전성시를 이루는데 반해 부산 국제보트쇼나 국제요트대회가 인기를 얻지 못하는 것은 '해양도시 부산'이라는 슬로건과는 어울리지 않으며 해외의 유명 항만도시와도 큰 차이점이다.

해양공간을 새로운 스포츠공간으로 활용, 새로운 레저문화 창출

해운·항만산업의 발전에 비해 해양스포츠나 해양레저가 성장하지 못한 것은 부산만의 상황은 아니다. 국내 대부분의 연안도시도 비슷한 상황이며 이는 친수문화가 발전하지 못하는데 원인이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해양공간에서의 스포츠나 레저를 생각할 때 연상할 수 있는 활동이 많지 않다. 해양에서의 휴양활동은 여름철 해수욕장 방문이나 수산물 시식이 주류를 이룬다. 그리고 바다에서의 스포츠 활동은 위험하다, 비싸다 등 막연한 거부감이 있다. 또한 해양스포츠를 즐겨본 사람도 많지 않으며 어떻게 배우고 참여하는지에 대한 정보를 얻기도 어렵고 정보원도 다양하지 않다.

한편 가치소비, 경험소비를 추구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새로운 관광 트렌드로 확산되면서 레저스포츠를 직접 즐기고 체험하려는 인구가 증가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해양스포츠는 새로운 레저문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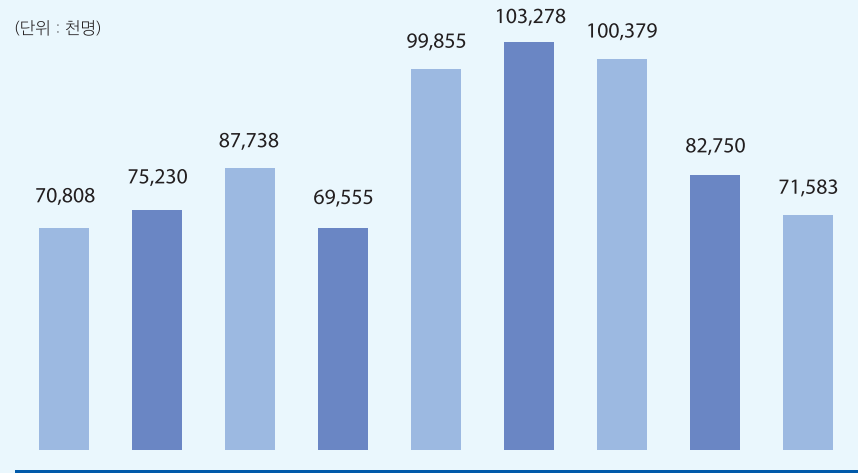
로 자리잡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바다에 대한 접근성이 우수한 부산이 해양친수문화의 확산을 통해 해양공간을 새로운 스포츠공간으로 활용한다면 새로운 레저문화 창출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되며 해양도시 부산의 브랜드가치도 제고될 것이다. 그리고 해수욕장 방문객이 점차 감소하고 있는 것에 반하여 해수욕장을 활용한 서핑인구의 증가, 마리나를 기반으로 하는 해양레저 서비스산업의 성장 또한 부산의 해양공간을 다변화시켜 해양레저 스포츠를 지역의 새로운 아이콘으로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Busan Marine Leisure



**해양레저
스포츠 즐기 위한
다양한 콘텐츠 개발 필요**

바다에 대한 심리적 거부감을 낮추고 해양스포츠-레저를 지역의 해양신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해양레저 스포츠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높이고 해양레저 스포츠를 즐기 위한 다양한 콘텐츠 개발이 필요하다. 특히 해양공간과 해양스포츠-레저에 관심을 갖고 친숙하게 느끼기 위해서는 청소년 시기부터 바다를 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바다를 접하는 경험을 통해 해양에 대한 흥미와 관심이 높아지면서 친수문화가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는 계기가 되기 때문이다. 세계 최고의 요트대회인 아메리카스컵(America's Cup)을 132년간 차지했던 미국에게 승리한 이후 해양스포츠 강자로 부상한 호주는 유년기부터 바다에서 즐길 수 있는 해양레저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해양레저스포츠를 일반인들도 일상적으로 향유하는 대중문화로 정착시켰다. 호주의 요트 세일링 체형 프로그램인 Tackers(Tackers junior sailing program)는 어린이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전문적이고 안전한 요트 세일링을 경험할 수 있는 교육·체험프로그램으로 교육을 통해 해양스포츠에 대한 관심과 친수문화가 확산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데 기여했다. Tackers는 유년시절에 경험한 해양레저스포츠 활동이 성인이 되어도 지속되고 자녀 세대의 참여로 이어져 온 가족이 세일링 프로그램에 동참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 있다. 해양레저스포츠를 위한 공간과 기반시설이 모두 갖추어진 부산에서도 어린이와 청소년을 중심으로 한 해양레저스포츠 프로그램을 마련해 친수문화가 확산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전국 해수욕장 방문객 추이]



**관광 콘텐츠, 플랫폼 마련
해양레저스포츠
시장 확대 노력**



해양레저스포츠 육성을 위해서는 해양친수교육 프로그램의 마련과 더불어 바다를 즐길 수 있는 관광콘텐츠의 개발과 정보 플랫폼의 구축이 필요하다. 과거 해양레저스포츠는 소수 전문가의 영역으로 일반인들은 관련 정보를 얻기 어려웠으며, 해양레저스포츠를 즐기 위한 콘텐츠도 부족했다. 최근 국내 관광 트렌드를 고려할 때 부산만의 고유한 해양레저스포츠 콘텐츠 발굴과 동시에 정보 제공 체계를 구축해 해양레저스포츠 대중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어야 한다. 세계 최대의 해양레저스포츠 장비 시장인 미국에서는 레저선박 보급과 이를 이용한 스포츠 활동에 대한 친밀감 조성 및 이용자 증대를 위해 'Discover Boating' 포털 사이트를 운영하는 한편 'Welcome to the Water' 캠페인을 시행하고 있다. 'Welcome to the Water' 캠페인은 다양한 해양레저 스포츠 활동에 대한 흥미와 관심을 유발해 스포츠 인구를 늘리고 공유 플랫폼을 이용한 레저선박 임대 등 해양레저스포츠 콘텐츠를 다변화하고 있다. 부산은 수영만요트경기장을 중심으로 마리나업이 활성화되고 있지만 일반인에게는 아직 익숙하지 않다. 따라서 해양레저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관광 콘텐츠와 플랫폼 마련을 통해 부산 지역의 해양레저스포츠 시장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해양도시 부산은 해양레저스포츠를 즐기 위한 공간과 기반시설은 충분히 구축돼 있고 이제 지역 주민이 참여하는 친수문화 확산이 필요한 시점이다. 부산 바다를 즐기려는 관심과 흥미를 높이고 해양레저스포츠 콘텐츠를 개발해 부산 시민이 아침에 일어나 해수욕장에서 서핑을 즐기고 출근하며, 주말에는 가족과 카누를 타거나 요트대회에 참가하는 새로운 라이프스타일이 자리잡기를 기대해본다.



SURFING

SPECIAL + 02

강렬한 여름, 찬란한 바다, 환상적인 서핑

4년 전 미국의 전설적인 로큰롤 밴드 '비치 보이즈(The Beach Boys)'는 데뷔 55년 만에 첫 내한공연을 가졌다. 비치 보이즈는 팝 황금기였던 1960년대 비틀스의 유일한 라이벌이자 우리에게 'Surfin USA(서핑 USA)'로 잘 알려진 그룹이다. 1963년에 큰 인기를 얻은 서핑 USA는 여름과 바다를 대표하는 음악으로 지금은 서퍼들의 찬가로 봐도 무방하다. 당시 우리나라의 서핑 인구는 집계조차 불가능했다.

글 : 국제신문 이지원 기자

세계적인 서핑의 발원과 역사

서핑(Surfing)은 '파도타기'라는 뜻으로 파도의 경사면을 가르는 운동이다. 날찍한 판자 하나에 의지해 거대한 파도와 한 몸이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선 고도의 평형감과 정확한 타이밍이 요구된다. 1950년대 초반 해도 서핑은 폴리네시아 지역 해안에서만 발달된 문화였다. 폴리네시아는 서핑의 발원지로 오세아니아 동쪽 해역에 있는 하와이, 뉴질랜드, 통가, 타히티 등 수천 개의 섬을 총칭한다. 폴리네시아 지역은 1년 내내 따뜻한 수온을 유지해 원주민이 나무로 만든 보드를 타고 파도를 즐기기에 안성맞춤이었다. 주민의 놀이 문화가 해양 스포츠로 발원시킨 셈이다.

서핑이 부흥하는데 큰 역할을 한 이는 1912년 스톡홀름올림픽 수영 금메달리스트이자 하와이 출신인 듀크 카하나모쿠(Duke Kahanamoku)였다. 그는 전세계를 다니며 수영 실력을 선보임과 동시에 지역 인기 놀이 문화인 서핑을 알리는 데 힘썼다. 이런 공로로 와이키키 해변 한 가운데 그의 동상이 세워져 있으며 오늘날 '서핑의 아버지'로 불린다. 별명이 '인간 물고기'인 카하나모쿠는 하와이 와이키키에 처음으로 서핑클럽을 열었다. 카하나모쿠의 서핑클럽으로 인해 전통놀이가 스포츠로 발돋움하게 되고 1960년대 초부터 세계 선수권대회가 열리고 있다.

2020 도쿄올림픽대회 정식 종목 채택된 서핑. 경기 진행 방식

가장 원초적인 놀이 문화이자 대표적인 해양 레저로 통했던 서핑은 2020도쿄올림픽대회에서 정식 종목으로 채택된 데 이어 2024파리올림픽대회에도 정식 종목으로 살아남았다. 서핑은 2016년 8월 3일 브라질 리우에서 열린 제129회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총회의 승인을 거쳐 도쿄올림픽대회 정식 종목이 됐다. 앞서 소개한 카하나모쿠가 올림픽대회에서 금메달을 딴 후 "언젠가 서핑이 정식 올림픽대회 종목이 됐으면 좋겠다"는 희망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지 104년 만에 올림픽대회 무대에 입성한 것이다. 서핑은 쇼트보드 부문에서 남자부와 여자부 각각 1개씩 총 2개의 금메달이 걸려 있다. 2024파리올림픽대회에서도 정식 종목으로 확정된 서핑은 최근 IOC 집행위원회를 통해 프랑스 파리에서 1만5706km나 떨어진 남태평양 타히티로의 경기 장소 변경안이 승인됐다. 프랑스령인 타히티는 서핑의 발원지로 손꼽힌다. 파리에서 비행기로 출발하면 아메리카 대륙을 지나 남태평양까지 22시간이나 걸리며 시차도 11시간이나 된다.

이는 역대 올림픽대회 중 개최 도시와 가장 먼 곳에서 경기가 열리는 대회로 남게 된다. 종전 기록은 1956년 멜버른올림픽대회 당시 승마 종목이 호주의 검역 관련 법 때문에 1만5589km 떨어진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열렸던 것이 가장 기록이었다. 서핑으로선 자신의 고향에서 올림픽대회가 열리게 돼 그 의미가 클 수밖에 없다. 특히 서핑의 발상지로 알려진 타히티 테아후푸는 세계에서 파도가 가장 큰 곳 중의 하나로 월드서프리그서킷 남자 대회 등 세계 주요 대회 개최지로 유명하다.

올림픽대회 서핑 경기의 진행 방식은 예선, 본선, 메달 결정전 순으로 펼쳐진다. 예선에서는 4, 5명이 경쟁하고, 본선에 진출한 두 명의 선수가 맞대결을 펼쳐 승리한 선수는 금메달 결정전에 진출하고 패한 선수는 동메달 결정전에 진출한다. 각 선수는 한 라운드에서 최대 25번의 파도를 탈 수 있다. 서핑의 심사기준은 크게 다섯 가지로 나뉜다. 월드 서핑 리그(WSL)에 따르면 연기 리스크와 난이도는 얼마나 높았는가, 연기에 어떤 혁신성과 공격성이 담겼는가, 주요 연기의 조합이 잘 어우러졌는가, 다양한 연기를 녹여냈는가, 연기의 힘과 스피드 그리고 기술의 흐름을 본 뒤 다섯 명의 심판이 선수 한 명씩 각각의 웨이브 점수를 1~10점으로 평가한다. 그리고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뒤 나머지 심판의 점수를 평균화한다. 구남현 부산서핑협회 전무는 "서핑이 올림픽대회 정식 종목으로 채택됐다는 것은 좀 더 객관적인 점수와 평가를 받는 진정한 스포츠로 넘어간다는 것을 뜻한다. 올림픽대회에 이미 들어가 있는 체조, 스노보드, 피겨스케이팅의 방식과 비슷하다"고 설명했다.



SURFING

66

선수 육성 위해선
서핑 선진국과의 교류도
활발하게 이어갈 생각

99

세계적인 선수 육성 시스템 도입 필요

최근 국내에서도 젊은층을 중심으로 서핑 붐이 일면서 서핑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하지만 정작 올림픽대회에 나서는 엘리트스포츠로 서핑의 저변은 매우 좁다. 후발 주자이기 때문이다. 서핑이 국내에 알려진 지는 이제 겨우 20년 정도로 21세기 들어서야 사람들이 즐기기 시작했다. 당연히 100년 넘게 서핑을 즐긴 종주국 미국과 유럽 등과는 비교할 바가 못 된다. 그나마 아시아에선 일본과 인도네시아가 명함을 내미는 수준으로 일본은 이미 1960~70년대에 서핑 붐이 일면서 세계적인 선수를 배출했고 인도네시아 발리도 천혜의 파도를 일년 내내 볼 수 있는 자연환경 덕분에 서핑 강국으로 발돋움했다.

구 전무는 “서핑 종목이 한국에 도입된 역사가 짧고 삼면이 바다임에도 파도는 대체로 잔잔한 자연환경을 감안하면 단시간 서핑 강국으로 도약하기 힘들다”면서 “게다가 국내 학교에는 서핑부가 한 곳도 없다. 서핑으로 진로를 결정한 유소년 선수는 호주, 하와이 등 서핑이 발달한 해외에 머무르며 자비로 개인 훈련을 하는 상황이다”고 현재 한국의 상황을 설명했다.

한국 서핑은 동계올림픽대회의 비인기 종목이었던 스퀘레톤, 컬링처럼 눈부신 성장을 이뤄 낼 수 있을까. 구 전무는 가능하다고 내다봤다. 그는 내년 도쿄올림픽대회와 차기 파리올림픽 대회 타히티에선 바다에서 대회가 치러지지만 머지않아 올림픽대회는 인공 서핑장에서 치러질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또 컬링 육성에 적극적이었던 의성군처럼 지자체의 협력까지 뒷받침되면 빠른 시간 내에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확신했다.

특히 세계적인 선수 육성 시스템 도입에 열을 올린다. 구 전무는 “대한체육회 정회원 가입이 1차 목표다. 좋은 지도자를 키우고 선수도 육성하기 위해선 서핑 선진국과의 교류도 활발하게 이어갈 생각이다”고 밝혔다. 귀화선수 도입 역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 그는 “현재 엘리트 선수가 전무하다. 당장의 성과를 얻기 위해 귀화선수 도입을 검토 중이다. 실례로 미국에 대표로 뽑히지 못한 교포나 현지선수를 데려와 메달을 딸 수 있다면 귀화선수에게나 대표팀에게나 ‘윈윈’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사회적 거리두기 안성맞춤 레저스포츠

대한서핑협회에 따르면 서핑 인구는 2014년 4만 명에서 2019년 40만 명으로 급증했다. 서핑 숭과 서핑학교 등 서핑 관련 업체 수도 2014년 50여 개에서 2017년 200여 개로 네 배가량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서핑은 제주 중문, 부산 송정해수욕장을 중심으로 확산됐으며 2010년 이후부터는 강원도 동해안 양양이 급부상 중이다. 대한서핑협회는 2009년 국제서핑협회(ISF)에 53번째 회원국으로 가입해 활동 중이다. 국가대표 선발전도 지난 6월 전남 고흥에서 처음 열렸다. 남자 조준희(강원), 여자 이나라(부산) 등 6명의 국가대표가 탄생했다. 이들의 기량은 미국·브라질 등 서핑 강국에 비해 낮지만 꾸준한 훈련으로 격차를 좁혀간다.

코로나19 여파로 1년 연기된 도쿄올림픽대회에 우리나라 선수는 참가하지 않는다. 아직 국제무대에 참가할 만한 실력이 안 되기 때문이다. 구 전무는 “현재 국제무대에 나설 만한 최상위급 선수는 손에 꼽을 정도”라면서 “지난해 첫 대표 선발전을 통해 조준희(강원) 등 남자 3명과 이나라(부산) 여자 3명이 국가대표로 뽑혔다. 아시안게임을 목표로 실력을 키우는데 매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세계적으로 확산한 코로나19 여파로 한국은 지난 3개월 동안 사회적 거리두기 등 힘든 시기를 보냈다. 고통의 시간을 감내한 끝에 쌀쌀했던 날씨는 어느새 땀벌 더위로 바뀌었다. 코로나19가 아직 종식되지 않은 상황이지만 지난 1일 ‘서핑의 메카’ 송정해수욕장이 개장했다. 보기에는 시원하지만, 막상 하려니 무서워 보인다면 주저하지 말고 이번 기회에 파도와 한몸이 되어보자. 서핑은 사회적 거리를 두며 즐기기에 안성맞춤인 레저스포츠다.



ISSUE
FOCUS

코로나19 특별성금 모금 전달식 개최



부산광역시체육회는 지난 4월 29일(수) 오후 1시 30분 부산시청 7층 국제의전실에서 '코로나19 특별성금 모금 전달식'을 통해 체육회 관계자와 관계단체가 십시일반(十匙一飯) 모금한 성금 전액을 기부했다. 이날 전달식에는 성금모금단체장인 부산광역시체육회 장인화 회장을 비롯한 체육회 임원과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과 기부처단체장 신정택 부산사회복지모금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성금 전달식을 개최했다. 부산광역시체육회 장인화 회장은 "부산뿐만 아니라 전국이 코로나19 피해로 인해 경제적인 것 뿐만 아니라 심리적·육체적으로 위축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산체육 관계자로서 단합된 저력을 보여준 모든 기부자(기부단체)에 다시 한 번 감사함을 전하며 이렇게 모금된 소중한 성금이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사회 피해 주민들에게 값지게 사용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
어려운 시기일수록
더욱 힘을 모아 연대와
협력으로 위기를
극복해 나가자
”

이어 변성완 권한대행은 “평소 부산 체육발전을 위해 많은 활동 중인 부산광역시체육회가 주도해 임원과 대의원 등을 대상으로 특별성금을 모금해 전달해주셔서 감사하며 어려운 시기일수록 더욱 힘을 모아 연대와 협력으로 위기를 극복해나가자”고 전하며 “방역을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로 물리적 거리는 멀어지고 있지만, 기부 릴레이가 이어져 마음의 거리는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고 전했다.
이날 부산광역시체육회에서 전달한 성금 약 8,210만 원은 부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코로나19로 인해 고통 받는 부산지역 피해 주민들을 지원하고 각종 방역과 위생관리용품 구입비 등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ISSUE FOCUS



BNK저축은행 근대5종경기 여자실업팀 지원 협약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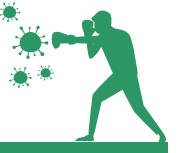
운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
비인기 종목인
근대5종경기의 활성화 도모

부산광역시체육회(회장 장인화)와 BNK저축은행(대표이사 성명환)이 지난 4월 10일(금) 오전 부산광역시체육회관에서 근대5종경기 여자실업팀 후원을 위한 협약식을 가졌다. 근대5종경기는 펜싱·수영·승마·사격·크로스컨트리 등 5개 종목을 하루에 모두 진행해 각 종목에서 득점한 점수를 합산한 총점으로 순위를 정하는 경기다. BNK저축은행은 성장 가능성이 있는 선수들에게 운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 비인기 종목인 근대5종경기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이번 지원 협약을 진행하게 되었다. 이번 협약에 따라 BNK저축은행은 선수단 운영을 위한 경비와 함께 유니폼, 훈련복 등 경기에 필요한 용품을 지원한다.

조보성 감독과 정민아, 김세희, 이화영 등 3명의 선수로 구성된 근대5종경기 선수단은 팀 명칭을 'BNK저축은행 근대5종경기 여자실업팀'으로 변경하고 앞으로 대회에 참가하게 된다. 이날 협약식에 참석한 부산광역시체육회 장인화 회장은 "이번 협약이 근대5종경기 종목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사랑을 늘어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선수단의 땀방울이 좋은 결실로 이어질 수 있도록 앞으로 체육회에 많은 관심을 부탁한다"고 전했다.



ISSUE FOCUS



부산광역시체육회 2020년 임시대의원총회 개최

체육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협조와 노력을
해달라는 당부

지난 5월 12일(화) 부산광역시체육회관 2층 대회의실에서 '2020년도 임시대의원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부산광역시체육회장을 비롯해 각 회원종목단체장들이 참석했다. 이날 대의원총회에서는 주요업무 현황 보고와 3건의 안건을 심의했다. 보고사항으로는 △2020년도 정기대의원총회 결과 △부산광역시체육회 임원 선임현황에 관해 보고했다.

그리고 심의안건으로는 △부산광역시체육회 규약 일부 개정(안) △부산광역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위원 선임(안) △부산광역시체육회 임원 선임(안)에 관해 심의가 이루어졌다. 이외에도 체육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이 나왔으며 앞으로도 체육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협조와 노력을 해달라는 당부와 함께 총회가 마무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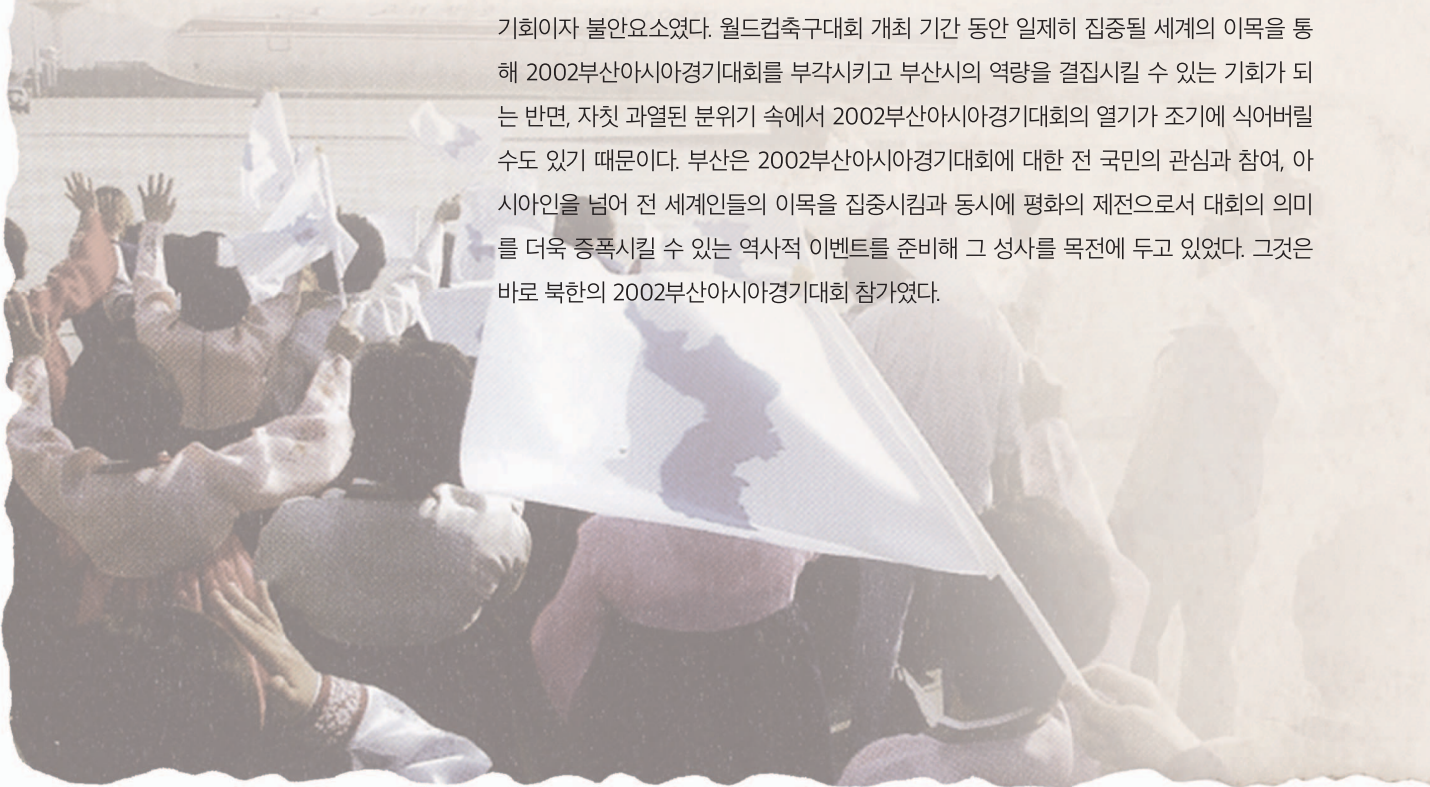


남과 북이 하나 된 평화의 축제, 2002부산아시아경기대회

01

아시아를 넘어 세계의 도시로

21세기를 맞아 일약 동북아시아의 중심을 넘어 세계적 도시로 도약하고 있는 부산에게 2002부산아시아경기대회는 이루 말할 수 없이 깊은 의미를 던져 주었다. 치열했던 아시아 경기대회 유치 과정에서부터 내재돼 있던 여러 가지 문제들이 2002부산아시아경기대회 개최를 불과 한 해 앞둔 2001년 전후에 잇따라 터져 나오으로써 대회 준비에 여념 없는 부산을 당혹스럽게 했다. 이 가운데 가장 큰 걸림돌은 아시아경기대회 총괄 기구인 OCA와 부산아시아경기대회 조직위원회 간의 마찰이었다. 또 부산 입장에서는 2002부산아시아 경기대회 개최에 불과 3개월여 앞서 2002한일월드컵축구대회가 개최된다는 것은 하나의 기회이자 불안요소였다. 월드컵축구대회 개최 기간 동안 일제히 집중될 세계의 이목을 통해 2002부산아시아경기대회를 부각시키고 부산시의 역량을 결집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되는 반면, 자칫 과열된 분위기 속에서 2002부산아시아경기대회의 열기가 조기에 식어버릴 수도 있기 때문이다. 부산은 2002부산아시아경기대회에 대한 전 국민의 관심과 참여, 아시아인을 넘어 전 세계인들의 이목을 집중시킴과 동시에 평화의 제전으로서 대회의 의미를 더욱 증폭시킬 수 있는 역사적 이벤트를 준비해 그 성사를 목전에 두고 있었다. 그것은 바로 북한의 2002부산아시아경기대회 참가였다.



02

통일과 평화, 하나의 불이 되다

북한의 2002부산아시아경기대회 참가는 2002년 시드니올림픽대회 남북한 동시 입장 이후 2년 이상 교착 상태에 빠져 있던 남북 체육교류의 물꼬를 다시 트는 결정적인 전기가 됐다. 그동안 남북 스포츠는 축구와 탁구 등 종목에서 단일팀을 이뤄 대회에 나선 적은 있었으나 300여 명이 넘는 북한선수단이 한국에서 개최되는 종합 스포츠대회에 참가한 것은 분단 이후 처음 있는 일이었다. 비단 체육 분야뿐만이 아닌 다양한 분야의 교류 가능성을 활짝 열어놓음으로써 남북관계를 크게 진전시키는 계기를 만들었다. 국내외 언론들은 북한의 2002부산아시아경기대회 참가를 남북관계가 화합과 평화의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이라고 평가했다. 2002부산아시아경기대회에는 북한 외에도 내전의 전화에 시달리던 아프가니스탄, 21세기 최초의 신생독립국인 동티모르까지 OCA 전 회원국이 빠짐없이 참가한 역대 최고 규모의 대회임과 동시에 명실상부 아시아의 평화와 화합을 다지는 스포츠 축제로 자리매김했다는 찬사가 끊이지 않았다.

03

아름다운 만남, 뜨거운 열전의 16일

2002부산아시아경기대회에서 한국이 거둔 최종 성적은 금메달 96개, 은메달 80개, 동메달 84개로 중국에 이은 종합순위 2위였다. 16년 전인 86아시아경기대회에서 거둔 금메달 93개, 은메달 55개, 동메달 76개를 앞서는 역대 최고의 성적이었다. 한국이 이처럼 일본과의 경쟁에서 완승하며 역대 최고의 성적을 거둔 것은 비인기 종목들에게 금메달이 쏟아져 나왔기 때문이었다. 정구가 7개 전 종목을 석권하고 세팍타크로가 남자 서클게임에서 금메달을 따내는 이변을 연출했다. 펜싱도 금메달 6개를 땀과 사격과 볼링, 요트, 레슬링, 체조 등도 금메달 목표치를 초과 달성했다. 한국은 37개 참가 종목 가운데 31개 종목에서 금메달을 획득했으며 36개 종목에서 동메달 이상의 성적을 올려 종목 간 균형적인 발전이 이뤄지고 있음을 확인했다. 4년 전 방콕아시아경기대회에서 금메달을 땀 종목이 22개에 불과했던 것과 비교해보면 더욱 고무적인 결과였다.

04

한계를 넘어 감동으로, 평등을 향한 도전

2002년 부산에서 개막한 제8회 아시아태평양장애인경기대회는 '평등을 향한 힘찬 도전'이라는 대회이념을 바탕으로 10월 26일부터 11월 1일까지 7일간 성대하게 개최되었다. 이 대회는 장애인의 재활의지 고취 및 사회인식 개선, 장애인 스포츠 발전의 도약대 구축,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 참여와 평등 실현, 국제 친선과 우호 증진에 기여 등을 대회의 목표로 삼았다. 아태장애인경기대회는 스포츠를 통해 인간 한계를 극복하고, 장애와 비장애를 넘어 사회통합이라는 장을 마련하는 데 의미가 있다. 부산은 이 같은 대회의 이념에 걸맞게 2002부산아시아경기대회의 폐막에 이어 2002부산아태장애인경기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름으로써 온 세계가 부산이라는 한 도시에서 연달아 개최된 두 대회를 통해 어떠한 장벽도 극복하는 진정한 스포츠 정신을 느낄 수 있었다.

식생활 개선만이 해답! 역류성식도염



흔히 역류성식도염이라 불리는 위식도역류 질환은 서구에서 주로 발생하는 질환이었지만 최근에는 우리나라에서도 발병률이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아시아 국가에서 속 쓰림이나 산역류 증상이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있는 사람이 이전에는 2.5~6.7%로 보고되었으나 2002년에는 7.1%, 2007년에는 7.9%, 최근에는 10% 내외로 조사된다.

위식도역류 질환의 대표적인 증상들

위식도역류 질환의 흔한 증상은 '가슴이 따갑다' 또는 '쓰리다'라거나 '가슴 가운데 부분에 타는 듯한 또는 뜨거운 듯한 불편감과 통증이 있다'라고도 하고 '목구멍이나 입으로 신물이 나 쓴 물이 올라온다'라고 환자들이 표현한다. 흔하지 않은 증상이 있을 수도 있는데 '가슴이 쓰리다 또는 빠근하다', '음식을 삼킬 때 걸리거나 잘 내려가지 않는다', '목에 뭔가 걸려 있거나 붙어 있는 것 같다', '목이 간질간질하거나 목소리를 맑게 하기 위해 헛기침을 한다', '목이 자주 쉬는 경향이 있다', '명치 아래에 고춧가루를 뿌려놓은 것처럼 화끈거린다고 호소하기도 한다.

사회활동을 저해하는 위식도역류 질환

위식도역류 질환의 원인은 가장 중요한 발병 경로인 하부식도 괄약근의 일시적인 이완이며 식도열공 탈장과 같은 해부학적 결손, 하부식도 괄약근의 낮은 압력 등이 원인이 될 수 있다. 하부식도 괄약근은 위와 식도 사이에 있는 조임을 담당하는 근육으로 이 근육이 약화될 경우 위 내 산이 식도로 역류할 수 있다. 위식도역류 질환의 원인에는 하부식도 괄약근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위식도역류 질환을 흔히 일으키는 원인 중에는 당뇨, 술, 흡연, 비만, 임신 등이 있고 하부식도 괄약근을 약화시키는 요인에는 커피, 탄산음료, 튀김, 기름진 음식, 초콜릿, 케첩, 머스타드, 아스피린 등의 진통소염제 등이 있다. 국내 위식도역류 질환의 유병률에 대한 연구를 비교해 보면 십수 년 사이 우리나라에서 증가 추세인 것으로 여겨진다. 이는 경제 성장으로 인한 음식·식습관의 변화, 비만 인구의 증가, 고연령층의 증가에서 기인한 것이라 추정된다. 위식도역류 질환의 진단은 상부위장관 내시경 검사를 해 위식도경계부에서 식도염 혹은 식도 점막의 결손을 보는 게 중요하나 병변이 없더라도 증상만으로 진단이 가능하다. 식도 산도검사를 할 수도 있다. 위식도역류 질환은 삶의 질 저하를 초래하며 신체적인 측면으로는 통증과 불편함으로 활동을 피하게 되고 정서적인 측면으로는 병을 갖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걱정을 하게 되고 사회 기능적인 측면에서는 어떤 종류의 음식과 외식을 피하거나 다른 사회 활동을 기피할 수도 있다. 생산적인 측면으로는 수면장애로 일상 근무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역류성식도염에 좋은 음식과 악화시키는 음식



GOOD

사과, 배, 바나나, 요거트, 저지방우유, 달걀, 닭고기, 푸른 생선 등



BAD

오렌지, 포도, 파인애플, 콜라, 초콜릿, 고지방 음식, 커피 등





**올바른
식생활 습관이 관건**



위식도역류 질환 치료로 양성자펌프억제제를 주로 사용하지만 생활습관을 조절하는 방법이 있다. 일상생활의 조절로서는 비만 환자에서 체중 감량에 도움이 되고 복부 압력을 높일 수 있는 몸에 조이는 옷은 피하고 몸을 구부리는 동작을 줄인다. 수면 시 머리 쪽을 올리는 게 도움이 될 수 있다. 누운 자세에서는 중력이 감소해 식도로 역류가 쉽게 일어나기 때문이다. 좌측으로 눕는 것이 우측이나 똑바로 눕는 것에 비해 위산 역류를 줄여주는 효과가 있다는 보고도 있다. 식사와 관련해서는 식사 후에 최소 2~3시간 동안은 자리에 눕지 않는 게 좋다. 가능한 저녁은 가볍게 먹는 것도 도움이 되며 야식을 먹지 않는다. 식후 곧바로 과격한 운동을 하지 않는다. 과식하지 말고 소식을 자주 한다. 위산 분비를 촉진하고 식도 점막을 자극하는 고지방 음식, 자극적인 음식, 신 음식, 탄산음료, 커피, 홍차, 카페인, 초콜릿, 술, 담배 등을 피한다. 과일 중에는 오렌지나 레몬 같은 감귤류와 파인애플, 포도 등의 신 과일들을 피하는 대신 바나나, 멜론, 배 등과 같이 신맛이 적은 과일류를 선택한다. 고지방 육류보다는 기름이 적은 살코기 부위가 낮고 닭고기도 껍질을 제외하고 먹는 것이 좋다. 등푸른생선, 저지방우유, 요거트, 달걀 등의 고단백 저지방 음식이 추천된다. 음식의 종류와 함께 조리법도 중요한데 튀긴 음식은 기름기를 많이 포함하므로 피하고 찌거나 삶거나 그릴 또는 오븐에 구워 먹는 것이 좋다. 또한 스트레스를 줄인다. 스트레스는 위 내에 음식물이 오랫동안 머물도록 하고 이는 위 내에 압력을 증가시켜 역류를 일으킨다. 규칙적인 운동은 위 운동에 도움이 되고 위 내 내용물이 잘 배출되도록 해 위식도역류 질환에 도움이 된다. 위식도역류 질환에 대한 적절한 식생활습관이란 환자가 좋아하는 특정 기호식품이나 많은 종류의 음식을 반드시 금지하라는 것이 아니다. 다만 환자의 식생활 습관 중 환자에게 증상을 유발하거나 악화시킬 것으로 의심되는 부분에 대한 개선의 노력이 종종 위식도역류 증상의 불편함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만약 어떤 음식이 환자의 증상을 유발 또는 악화시키는지 알고 싶다면 1~2주 동안 매일 음식 일기를 적어보는 것도 도움이 된다.

위식도역류 질환은 항상 관리가 필요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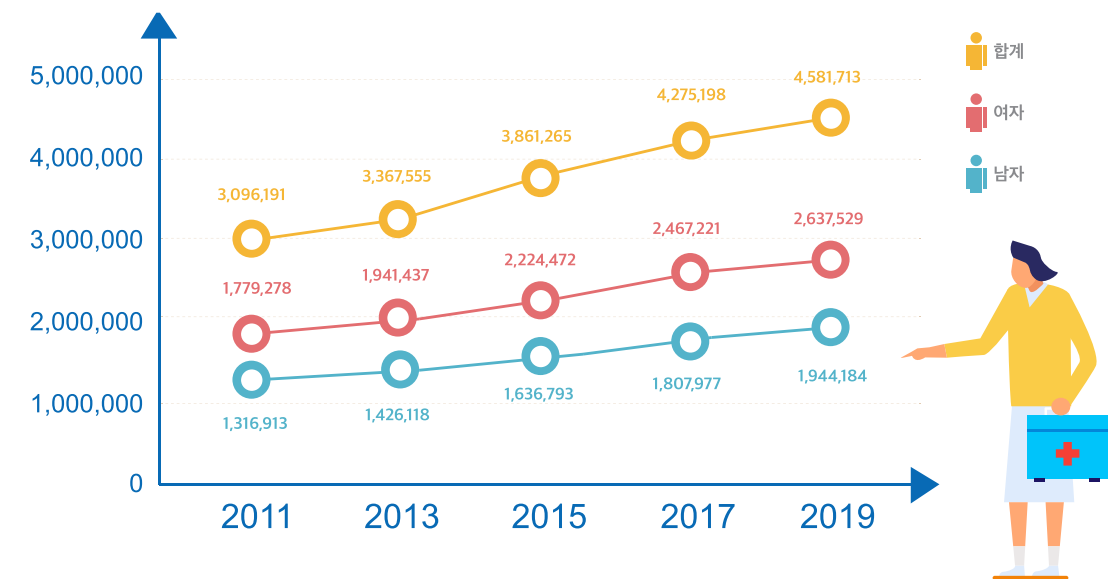
**장기적인 관리가 중요한
위식도역류 질환**



위식도역류 질환은 약물 요법이 주된 치료이며 위 내 위산감소를 위한 약물로 양성자펌프억제제가 주된 치료제이고 히스타민수용체 길항제, 제산제를 사용할 수 있다. 위장운동 촉진을 위한 약물을 사용할 수 있고 기타 보조적인 약물로 항우울제, 항불안제, 점막보호제, 하부식도조임근 작용제를 쓸 수 있다. 위식도역류 질환은 약을 끊으면 재발할 수 있고 장기 유지요법이 필요할 수도 있다. 이 병은 완치보다 관리하는 병이다. 잘 관리해 증상 없이 좋은 삶의 질을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

출처 : 한국건강관리협회

연도별 환자 수 추이



출처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건의료빅데이터개방시스템



현란한 기술, 환상적 골에 환호, 각본 없는 드라마! 지구촌 최대 축제, 축구!

그야말로 열광의 도가니였다. 대한민국에서 열린 2002년 월드컵축구대회는 온 국민을 거리로 불러냈다. 한국 축구 국가대표팀을 응원하기 위해 1995년 12월 자발적인 축구팬들로 결성된 '붉은 악마'는 한국을 상징하는 문화 키워드로 통했다. 온 국민들의 뜨거운 함성, 빨갛게 물들인 거리 응원, 축구로 우리는 분명 하나였다. 11명의 팀원이 전술에 따라 자신의 역할을 정확히 판단해 플레이하는 스포츠 축구. "대한민국!"을 목청껏 외쳤던 그날을 떠올리며 축구를 짚어본다.



차고 넘치는 매력 만점 스포츠, 축구

축구는 공을 발로 차서 상대방의 골대 안에 넣는 경기로 전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스포츠 중 하나다. 19세 중반 영국에서 정립돼 일찍부터 프로 스포츠로 자리를 잡았고 1900년 파리올림픽대회에 시범 종목으로 참가한 후 올림픽 정식 종목이 됐다. 한편, 월드컵은 1930년 우루과이에서 첫 대회를 열어 시작되었다. 경기 방법이 단순하고 경기 규칙도 이해하기 쉬워 세계 곳곳에서 인기를 누리며 성장했다. 특히 월드컵축구대회의 경우 올림픽대회보다도 더욱 인기 높은 스포츠 이벤트로 성장했다. 축구는 가격이 저렴한 스포츠다. 축구공 하나에 양팀 선수 22명이 특별한 장비 없이 즐길 수 있다. 비싼 장비도 필요 없고 특정 장소에도 구애 받지 않는다. 공식적인 축구 선수 인원은 11명이지만 조기 축구와 동네 축구에서는 인원을 크게 제한 두지 않는다. 축구는 매 대회마다 우승팀을 가능하기 어려울 만큼 흥미진진한 경기들이 수 없이 반복된다. 아무리 강한 팀이라 해도 방심하거나 그날따라 골 운이 따라주지 않으면 패배한다. 스포츠 종목 중 축구만큼 민족의 자존심을 걸고 사활을 거는 스포츠도 없다. 축구때문에 전쟁이 일어나는 역사를 보면 알 수 있듯 축구는 지구촌 최대의 스포츠 축제다.

Soccer



Busan Soccer,



축구의 역사, 축구의 종가 영국과 만나다

축구는 기원전 6, 7세기 때 고대 그리스의 하르파스톤(Harpaston)이라는 게임에 기원을 둔다. 하르파스톤은 로마에 전해져 무사들의 훈련이나 군대의 스포츠로 행해지다 영국에 소개됐다. 그러나 하르파스톤은 오늘날의 축구와 관련성이 적고 11세기경 덴마크의 학정에 시달리던 영국인들이 덴마크 군을 물리친 후 전사한 덴마크 병사들의 두개골을 발로 차면서 기뻐했다는 기록이 축구의 발생과 더욱 관련이 깊다. 그 후 발로 차는 경기가 생겨나 14세기 이후 영국에서 큰 인기를 끌었다. 하지만 당시는 골대 없이 하는 경기로 오늘날의 축구와 력비가 혼합된 경기였다. 19세기 중엽에 들어와서 야 축구는 확실하게 자리를 잡는다. 1863년에 영국 축구협회가 발족되었는데, 축구의 규정을 정립하고 명칭을 풋볼(Foot Ball)이라고 했다. 풋볼은 후에 미식축구와 구별하기 위해 사커(Soccer)로 바꿨다. 당시 발만 사용하는 축구 규정에 반발하고 태동한 것이 바로 력비다. 영국은 세계 곳곳에 식민지를 세우며 축구를 널리 보급, 오늘날 '축구의 종가'로 불리게 되었다. 축구는 1900년 파리올림픽대회에 시범 종목으로 첫 선을 보인 후 1932년 로스엔젤리스올림픽대회만 제외하고 올림픽 경기종목이 되었다. 하지만 초창기에는 국가 대표들의 경기라기보다는 여기저기에서 팀을 불러와 치러서 국제축구연맹에서는 1912년 이전까지의 올림픽 축구는 공식 경기로 인정하지 않는다. 하지만 국제올림픽위원회에서는 공식 기록으로 인정하고 있다.

일찍부터 세계 곳곳에 프로 리그가 태동하면서 아마추어만 참가하는 올림픽대회에서는 세계 최고 수준의 경기를 펼칠 수 없었다. 그래서 1930년 우루과이에서 월드컵축구대회가 시작되었다. 1회 월드컵이 우루과이에서 열린 것은 1924년과 1928년 올림픽대회에서 2연속으로 우승한 데다 1930년이 우루과이 독립 100주년이었기 때문. 이후 월드컵축구대회는 폭발적인 인기를 얻으며 단일 종목으로 세계 최대 대회로 성장, 올림픽대회보다 더욱 인기 있는 대회가 된다.

한편 순수 아마추어 정신을 지향하던 올림픽대회에도 서서히 프로 선수들의 참가를 허용하기 시작해 축구의 경우 1992년 바르셀로나올림픽대회에서 처음으로 프로 선수들에게 문호를 개방했다. 그러나 나이를 23세 이하로 제한했고 1996년 애틀랜타올림픽대회에는 나이 제한이 없는 와일드카드 선수를 3명까지 참가할 수 있게 규정을 바꿨다. 더불어 1996년 애틀랜타대회부터는 여자 축구도 도입됐다. 여자 축구는 저변이 넓지 않아 연령 제한을 두지 않는다. 올림픽대회 남자 축구는 16개국씩 본선에 올라 4개국씩 4개조로 나뉘어 조별 리그를 치러 각 조 1, 2위 팀이 8강에 진출하고 8강부터는 토너먼트로 경기를 치러 금메달의 주인을 결정한다. 여자 축구는 12개 팀이 본선에 올라 4개국 3개조로 나뉘어 조별 리그를 치러 각 조 1, 2위 팀과 각 조 3위 팀 중 성적을 따져 2팀이 각각 8강에 진출해 토너먼트로 우승을 가린다.



민족의 울분을 식히는 스포츠로 인식돼

우리나라에 축구가 소개된 것은 1882년 영국 군함 플라잉 피시가 인천의 제물포에 정박해 승무원들이 해변에서 축구를 한 것이 최초다. 오늘날의 축구는 1904년 서울에 있는 외국어 학교에서 교사인 마르텔(Martel)에 의해 체육 과목의 하나로 삼아 보급되기 시작했다. 1906년에 대한체육구락부와 황성기독교청년회가 국내 최초로 축구 경기를 열었다. 1921년 2월 11일부터 4일간 제1회 전 조선축구대회가 열렸으며, 1933년에는 경성과 평양의 경평대항전이 시작되며 축구에 대한 붐을 일으켰다. 특히 당시의 축구는 나라를 잃은 우리 민족의 울분을 식히는 스포츠로 인식되었고, 그런 전통은 해방 뒤에도 이어져 일본과의 경기에 큰 영향을 미쳤다.

축구는 우리나라의 여러 구기 종목 중 가장 먼저 프로화 된 종목이다. 1980년 12월 첫 프로팀으로 '할렐루야'가 창단되었고 1982년 12월에는 유공이 그리고 뒤를 이어 대우와 포항제철 등의 실업팀들이 프로로 바뀌어 1983년 5월 '슈퍼리그'를 시작했다. 이후 발전을 거듭해 월드컵대회와 올림픽대회에서 좋은 성과를 거두는 밑거름이 되었으며 현재는 12개 팀이 참가하는 'K리그'를 치르고 있다.



사람답게 살아가기 위해 가장 필요한 덕목 배우다

1시간만 축구를 해도 비만에 걸릴 확률이 낮아진다. 또 축구는 다리의 전체적인 근육을 더욱 탄탄하게 만들어주고 많이 오래 뛰는 만큼 체력이 길러진다. 기본적인 운동 신경을 키우면서 멀리뛰기, 발야구, 달리기 등에 도움이 된다. 또 축구는 여러 사람들과 함께하는 플레이어서 사교성과 협동심을 키우는 데도 좋다. 노벨문학상 수상자 알베르 카뮈는 어린시절 축구클럽 골키퍼였고 프로 선수를 꿈꿨지만 몸이 좋지 않아 포기했다. 그런 그가 축구에 대한 유명한 명언을 남겼다.

“나는 스포츠 덕분에 인간의 도덕과 의미를 확실히 알게 됐고 축구클럽에서 그걸 배웠다.”

알베르 카뮈가 말한 도덕과 의무는 무엇일까. 인간 세상을 지배하는 키워드는 경쟁, 혼자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사는 게 인생이다. 양보, 희생정신, 단결, 협동, 질서, 패배인정, 상대존중, 미안함 등 사람이 사람들과 어울려 사람답게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덕목을 배웠다고 말했다.

“내가 골을 넣고 싶어도 더 좋은 위치에 동료가 있다면 패스해야 합니다. 양보죠. 과도한 파울을 하면 경고를 받고 경고가 거듭 되면 그라운드를 떠나야 합니다. 질서죠. 내가 떠나면 남은 동료들에게 미안해야 합니다. 그리고 남은 동료들은 내 몫을 나눠 뛰면서 희생해야 합니다. 개인이 아무리 잘나도 승리를 위해 개인 욕심을 버리고 마음을 합해야만 이길 수 있는 게 축구입니다. 상대가 아무리 형편없는 팀이라도 끝까지 존중해서 싸워야 합니다. 이기면 상대를 위로하고 패하면 심판을 탓하지 말고 패배를 인정해야 합니다. 이 모든 걸 잘 배울 수 있는 게 바로 축구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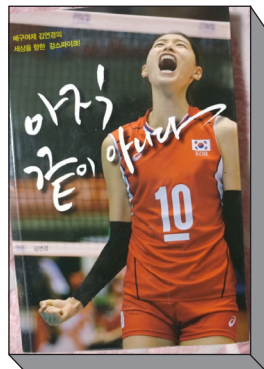


BOO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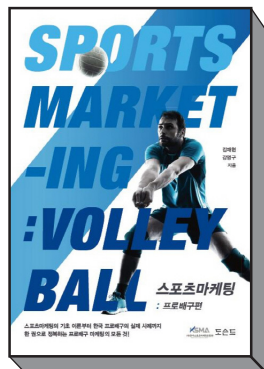
축구의 미학 지음_ 프리츠 B. 지문

시스템이론의 석학들이 내놓은 축구에 대한 번뜩이는 통찰과 흥미진진한 이야기들이 축구를 보는 눈을 뒤바꿀 것이다. 왜 축구팀의 인원은 15명이 아니라 11명인 것일까? 골대의 크기는 왜 가로 7.32미터 세로 2.44미터인 것일까? 새로운 오프사이드 규칙은 왜 도입된 것일까? 선수들이 손을 사용하면 안 되는 이유는? 나라마다 축구 스타일이 다른 이유는 무엇일까? 브라질은 어떻게 축구의 최강자가 되었을까? 연장전에서 골든골제도가 사라진 이유는 무엇일까? 농부가 많은 돈을 버는 건 시기해도, 호날두가 천문학적 액수의 연봉을 받는 것을 인정하는 이유는? 게임에서 늘 페어플레이 정신을 강조하는 이유는? 이런 당연한 질문과 그에 대한 세계적 석학들의 답변은 우리에게 축구에 대해 새로운 시각을 갖게 한다. 경기장에 그려진 라인들의 철학적 의미에서부터 코치진이 앉아 있는 벤치의 역할, 관중석, 파도타기, 골 세리머니, 경기시간, 헤딩 등에 이르기까지 축구의 가장 기본이 되는 요소들에 대한 분석들은 우리들의 축구 지능을 높여줄 것이다.



아직 끝이 아니다 지음_ 김연경

한국 여자배구 사상 최고의 왼쪽 공격수 김연경이 처음 배구를 시작했던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자신이 걸어온 길을 돌아보며 자신만의 방식을 솔직한 입담으로 풀어놓은 책. 주목받지 못했던 유년 시절을 이겨내고 일본과 터기에 진출하여 세계를 사로잡고, 한국 여자 배구 사상 유일무이한 세계적 스타로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 솔직하게 들려준다. 그녀는 자신에게 가장 강력한 라이벌은 자신이라 생각하며, 스스로의 한계를 끌어올리기 위해 지금도 매일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자신에게 단 하나도 쉬운 것이 없었으며, 하나하나 난관을 넘어가며 도전에 대한 근력을 키워나갔다고 이야기하면서 매일 최선을 다해 꿈을 따라간 결과 자신이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이룰 수 있었다고 고백한다.



스포츠마케팅 : 프로배구 편 지음_ 김재현, 강영구

우리나라의 프로스포츠는 1980년대 프로축구를 시작으로 야구, 농구가 프로화 수순을 밟았다. 프로스포츠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함께 88서울올림픽대회를 기점으로 스포츠의 열기는 더욱 뜨거워졌다. 배구의 경우, 1984년 배구의 대제전을 시작으로 해 88서울올림픽대회 이후 대형 스타 선수들의 탄생으로 인기를 더해갔다. 여자배구의 경우 김연경이라는 세계적인 스타플레이어의 탄생을 통해 대한민국 배구에 많은 공헌을 하고 있다. 현재 배구 관련된 서적은 기술 서적을 제외하고 경영 서적이나 마케팅 서적은 전무한 상황이다. 이 책으로 스포츠마케터를 꿈꾸는 학생들이 배구 마케팅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과 배구 마케팅의 실무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MOVIE



아이언 레이디 감독_용유스 통콘툰 출연_제다폰 폴디

예쁜 남자들의 비밀무기, 한판 제대로 붙자

실력은 뛰어나지만 '게이'라는 이유로 배구 선수 선발에 번번이 밀려나야 했던 단짝친구 '쫘'과 '몽'에게도 광명의 날은 온다. 레즈비언 코치 '비가' 새로 취임한 지역 배구팀에 그들이 선발됐기 때문이다. 그 기쁨도 잠시, 함께 선발된 다른 선수들이 게이와는 같이 뛸 수 없다고 보이콧을 한 것. 난감한 두 친구는 비 감독을 앞세워 팀 재구성에 나서게 된다. 트랜스젠더 피아, 군인 농 그리고 게이라는 사실을 밝히지 못해 부모가 정해진 처녀와 결혼을 해야만 하는 윗. 거기에 그들을 진심으로 이해할 줄 아는 꽃미남 차이가 주장으로 가세해 막강 파워 배구팀 '아이언 레이디'가 결성된다. 진실과 격려라는 상반된 시선을 받으며 지역 대회를 휩쓸고 본선에까지 진출하는데, 인생이 언제나 해피할 수만은 없는 법, 그들의 승승장구 앞에 뜻하지 않던 장애가 가로막는다.



꿈은 이루어진다! 감독_계윤식 출연_이성재

가슴이 뜨겁다면 우리도 붉은 악마

전 세계가 열광의 붉은 기운으로 물들던 2002년 한일월드컵 당시, 유일하게 고요함이 감돌던 DMZ 북한 43GP. 비록 바람 빠진 공을 차지만 품만은 국가대표급인 1분대장은 흥명보부터 박지성까지 남한의 축구선수 명단을 줄줄이 읊을 만큼 사상이 둥근 축구광이다. 야간수색을 하던 어느 날, 1분대장과 분대원들은 허기를 달래고자 멧돼지를 쫓던 중 남측 군사들과 맞닥뜨리게 되는데... 그 이후 무전병에 의해 알 수 없는 신호와 함께 남한의 월드컵 중계방송 주파수가 잡히자 1분대 전원은 목숨을 걸고 경기일마다 그 주파수에 맞춰 다이얼을 돌린다. 과연 월드컵 하나로 뭉친 남북 병사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까?



맨발의 꿈 감독_김태균 출연_박희순, 고창석

동티모르 한국인 '히딩크' 감독실화

한때 촉망 받는 축구선수였지만 지금은 사기꾼 소리를 듣는 전직스타. 이제 원광(박희순)이 인생 역전의 마지막 승부수를 던질 곳은 내전의 상처로 물든 동티모르뿐이다. 그러나 그에게 마지막 찬스가 찾아온다. 거친 땅에서 맨발로 공을 차는 아이들을 목격한 것! "아이들에게 축구화를 팔자" 이 귀여운 독점사업(?)의 성공을 확신한 원광은 축구용품점을 차리고 짝퉁 축구화 살 돈도 없는 아이들과 하루 1달러씩 2개월 동안의 할부 계약을 맺는다. 그러나 그들의 계약은 세상에서 가장 지키기 힘든 약속이 되고 만다. 축구팀의 일원이 되고 싶었던 아이들은 열심히 돈을 벌지만, 하루 1달러는 너무 큰 돈이었다. 1달러 대신, 닭 한 마리가 오가던 끝에 결국 아이들의 원망만 가득한 축구화는 반납되고 원광은 가게를 접기로 결심한다. 하지만 무슨 미련이 남아있었던 걸까? 축구를 그만두고 싶었던 원광이 아이들 때문에, 이번만큼은 끝을 보고 싶어지는데...





부산국민체육센터

생활체육
활성화,
건강사회로
가는 길

2002년 11월 개관, 18년 세월만큼이나 건물이나 시설은 노후했지만 매년 관리를 잘해온 터라 외관이나 내부가 깔끔했다. 부산국민체육센터는 스포츠 7330 운동실천을 목표로 지역사회의 건전한 여가활동과 건강생활을 위해 유아에서 노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이며 시민 건강지킴이 역할을 충실히 수행 중이다. 인근에 구덕운동장과 구덕야구장 등 생활체육시설이 근접한 부산국민체육센터를 찾았다.



기본부터 충실할 것!
이용자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일

부산국민체육센터 하루 이용자 수는 1,500명 정도, 가입한 회원 수는 4천 명이다. 일반 직 30명, 파트타임 47명 직원들이 근무 중인 부산국민체육센터에서 제일 인기 많은 프로그램은 어르신들이 애용하는 아쿠아로빅과 에어로빅. 총 3층으로 수영장뿐 아니라 실내 농구코트, 댄스실, 헬스장, 요가실, 탁구장 등 두루두루 갖춘 이곳은 부산광역시체육회에서 운영하는 4개 센터 가운데 역사가 제일 오래되었지만 가장 많은 회원 수를 자랑한다.

부산국민체육센터만의 특징은 꿈나무체능단이 있다는 점이다. 5세부터 7세까지 80여 명 정도의 원아를 받아 교육과정을 갖춰 보살피는데 수영과 태권도, 발레, 국악, 바둑, 인성 교육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돋보인다. 수영 수업만 해도 일주일에 세 번이다. 7세가 되면 웬만한 영법을 다 익힌 시점, 아무지게 접영을 하는 모습은 깜찍하다 못해 탄성이 나올 정도라고 한다.

“교통이 편리한 편이에요. 서구, 사하구, 사상구, 중구 등에서 주로 오시는데 셔틀버스도 3대가 하루에 7회 정도 운영해요. 일반 체육센터에 비해 반값도 안 되는 금액으로 이용 가능해 어르신들에게 특히 인기가 많죠. 이른 아침 운동을 한 뒤에 삼삼오오 모여 사랑방처럼 이야기꽃을 피우거나 센터 건물 주변에 우거진 나무 밑에서 삼겹살도 구워 드시고 이곳을 아지트 삼아 애용하는 걸 보면 제 마음도 뿌듯하답니다.”

센터 관계자는 늘 회원들의 불편함이 무엇인지에 촉각을 곤두세운다. 가급적 사소한 건 의사항도 들어주려고 애썼다. 회원 수를 늘리기 위해 센터 시설 개선 부분에 특히 신경을 썼었다. 중앙집중식으로 돼 있던 냉난방 시설도 교체한 것도 그 일환이었다. 각 교실마다 시스템 에어컨을 설치한 게 작년이다. 부산국민체육센터 수영장 물은 지하수로 하루 100여 톤을 물을 새로 주입해 정화시킨다. 한 달에 한 번 부산환경보건연구원에 의뢰해 수질 검사를 철저히 받을 뿐 아니라 코로나19 사태로 잠시 문을 닫았을 때도 서구보건소에서 일주일에 한 번 와서 방역을 시행하는 등 자체 소독을 철저히 했다.

예전처럼 시골벽적 회원들의
사랑터가 됐으면

“2018년 12월쯤이었어요. 한 차량 운전자가 병원인 줄 알고 급하게 이곳으로 오셨는데 심장이 안 좋으셨나 봐요. 차를 세우자마자 바로 쓰러지셨거든요. 한 직원이 재빨리 심장제세동기를 이용해 심정지를 막을 수 있었죠. 그분 아드님이 부산광역시 게시판에 감사 글을 올렸고 해당 직원은 서부청장에게서 자랑스러운 서부인상을 받았답니다.”

늘 회원들의 입장이 되어 보고 그들과 눈높이를 맞춰 온 부산국민체육센터, 코로나19 사태가 빨리 종식돼 예전처럼 시골벽적한 센터의 모습으로 돌아갔으면 하고 간절히 바랐다. 부산국민체육센터는 지난 6월 1일(월)부터 센터 문을 열고 전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소통하며 기본에 충신한 북구국민체육센터가 될 터

“북구국민체육센터가 시설 면에서는 다른 세 곳 센터에 비해 제일 열악하지 않나 싶어요. 예를 들면 수영장의 레일 수도 다른 곳은 7개인데, 여긴 5개인데다 한 레일은 장애인 겸용 레일로 제작됐거든요. 주차장도 협소한 편이고 여러모로 어려운 부분이 많지만 회원들 목소리에 늘 귀를 기울이려는 노력은 꾸준히 했어요.”

일단 회원이 되면 수년 꾸준히 운동하는 회원들이 유독 많은 북구국민체육센터, 정직원 17명에 일반파트 36명이 머문 이곳은 지상 1층은 기계실과 주차장 2층은 안내데스크와 사무실 그리고 수영장이 3층에는 헬스장과 클럽하우스 그리고 휴게실이 자리했다. 4층은 스튜디오실과 체육관이 있다.

“북구국민체육센터는 정부에서 추진중인 공공스포츠클럽 육성사업을 유치, 운영을 통해 다종목 프로그램과 다수준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어요. 스포츠클럽 소속 운동선수 육성으로 스포츠선순환 기틀 마련과 수익 창출을 통해 독립채산제로 재정적 자립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센터 관계자는 올해 3층 휴게실 리모델링과 옥상 휴게실 조성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평소에도 지역 주민들의 건의사항을 적극 수렴해온 북구국민체육센터 늘 소통하는 센터 운영에 초점을 맞춰 왔다.

북구국민체육센터

전문체육과 생활체육 모두 가능한 스포츠 인프라!

북구국민체육센터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주관하는 우수공공체육시설 선정사업에서 2017년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또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북구국민체육센터를 표방하며 전문체육과 생활체육이 모두 가능한 스포츠 인프라를 갖췄다. 센터 문을 연 건 2011년 10월, 하루 이용자는 1,500명가량 되는 북구국민체육센터를 갔다.



회원들의 체력 증진 공간으로 부족함 없게끔

“코로나19 사태로 석 달가량 센터 문을 닫고 있었죠. 다들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때, 저희 직원 중에 참 돋보이는 이가 있어 칭찬해주고 싶어요. 부장겸 국장인데 절 많이 도와주는 장성우 씨예요. 1년 열두 달 6시에서 6시 반 사이에 출근해서 센터 이곳저곳을 세심하게 살펴본 직원이지요. 그렇게 성실하게 일하는 직원은 보지 못한 거 같아요. 코로나19 사태에도 하루도 출근하지 않은 날이 없었던 거 같아요. 저렇게 성실한 직원이 북구국민체육센터에 있다는 것만 해도 큰 힘이 돼요.”

북구국민체육센터 직원들은 3개월마다 한 번씩 응급처치협회에서 나온 강사로부터 교육을 받아왔다. 심폐소생술을 시행할 때도 어느 정도의 강도에서 가슴 부위를 압박해야 하는지, 정기적인 교육이 이어지지 않으면 그 감(感)을 잃기 때문이다. 잘못 압박을 가했다가 갈비뼈가 부러지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지속적인 교육은 그래서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전 세계적인 위기 코로나19 사태를 맞으면서 평범한 일상의 소중함이 더욱 절실해졌다. 하루라도 빨리 센터가 다시 문을 열고 회원들이 선택한 운동 프로그램을 통해 체력을 키우는 일상이와졌으면 하는 바람을 드러냈다. 북구국민체육센터는 지난 6월 1일(월) 센터 문을 열고 요가나 필라테스 등을 제외하는 운동 프로그램을 가동 중이다.



영도국민체육센터

영도 지역민의 믿음직한 건강 지킴이

2009년 문을 연 영도국민체육센터는 영도어울림문화공원 안에 위치한 체육센터다. 문화예술회관, 도서관, 국민체육센터 등이 함께 들어 있는 복합문화공간인 영도어울림문화공원 안에 있다 보니 이용자 수가 많은 편. 회원 수는 3,500명인데 하루 3,000명가량이 찾는다고 했다. 회원의 90%가 영도 주민, 지역민들의 건강 지킴이로 제 역할을 톡톡히 해 온 영도국민체육센터를 찾았다.



관장실은 토박이 어르신들 사랑방, 열린 소통의 공간

상근직 22명, 파트 강사 36명이 근무하는 영도국민체육센터 1층은 수영장이 1~2층에는 다양한 프로그램의 체육 공간이 3층은 일반 사무실과 스크린골프장, 인도골프연습장이 있고 4층에는 식당과 매점이 자리했다. '영도' 지역이 특히 노령화가 급속한 터라 전체 회원 수의 70%가 60~70대 어르신들이다. 코로나19 사태로 센터 문을 닫은 지 수개월, 그동안 7개의 레인이 있는 수영장에 딸린 남녀 샤워장과 헬스장 전체를 보수했다. 영도국민체육센터가 타 체육센터와 차별화되는 건 스퀘시장이 갖췄다는 점. 제일 붐비는 시간대는 오전 9시부터 12시, 가장 인기 있는 프로그램은 헬스와 수영인데 수영 중에서도 아쿠아로빅이 제일 핫한 프로그램이라고.

“타 센터에 비해 비교적 공간이 넓은 편이라 이용하는 분들의 만족도가 높은 편이에요. 이용하면서 불편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홈페이지에 글을 올리거나 저를 찾아와 얘기해 주십시오 늘 말씀드렸는데요. 아무래도 컴퓨터 활용이 어려운 어르신들이다 보니 직접 찾아오는 경우가 많으세요. 제 방이 어르신들 사랑방 같을 때도 있습니다. 다들 '영도'에 애정이 남다른 분들이세요.”

노인에게 유익한 프로그램 개발 절실한 터

한번은 수영장에서 강습 중이던 40대 중반의 회원이 갑자기 뇌출혈 증상을 보이면서 쓰러져 바로 119에 전화해 대학병원으로 옮긴 적이 있다고. 다들 재빨리 상황 파악을 하고 바로 병원으로 옮긴 덕분에 쓰러진 회원은 큰 후유증 없이 건강을 되찾고 재활 치료도 열심히 받고 있다고 했다. 언제나 사건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공간인 만큼 긴장감을 놓치지 않고 어떤 상황에도 유연하게 대처하기 위해 영도국민체육센터 직원들은 응급처치 훈련도 꾸준히 받으며 준비에 만전을 다한다.

“강서구, 북구, 부산, 영도 이렇게 네 군데 체육센터가 모여 수영대회를 하려고 날짜까지 잡았는데 코로나19 사태로 취소가 됐어요. 앞으로 코로나19 사태가 좀 진정이 되면 다시 대회를 추진해야죠. 이런 행사가 자주 있어야 회원들도 또 다른 재미도 찾고 각 센터마다 회원 유치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코로나19 사태가 더 번지지 않기 위해서는 지나치다 싶을 만큼 각성이 필요한 시점이다. 센터 곳곳에 소독제 비치하는 기본, 센터 방문 회원 일일이 다 성명과 연락처를 적고 발열체크를 하는 것 또한 기본일 테다. 수영을 빼곤 운동을 하면서도 마스크 쓰기를 적극 권하고 있다. 어르신 회원이 많은 영도국민체육센터의 특성상 노인 관련 프로그램을 늘리는 게 회원 유입에 효과적일 터, 게이트볼이나 그라운드골프 등을 신설할 계획이다. 영도국민체육센터는 지난 6월 1일(월)부터 요가처럼 근접한 운동을 제외하고 다른 운동 프로그램은 정상 운영 중이다.

“
직원들은
응급처치 훈련도
꾸준히 받으며
준비에 만전
”



강서구국민체육센터

현실과 조건을 뛰어넘는 에너지, 경영 흑자로 돌려!

주위를 둘러보면 주거지는 없고 공단이 많다. 그래서인지 낮 시간대 센터는 한적한 편, 직장인들이 이른 아침이나 퇴근 후 시간을 내어 센터를 이용하는 게 특징이다. 주거 단지에 인접한 위치가 아니기 때문에 접근성이 좋지 않은데다 셔틀버스도 운행하지 않는다는 단점에도 강서구 국민체육센터를 찾는 회원은 하루 2,000명 정도 된다. 2013년 문을 연 이후 내내 적자 운영에 그쳤던 강서구국민체육센터는 2019년 221명의 회원이 늘어 긍정적인 변화의 바람을 몰고 왔다.



경영 적자를 흑자로 돌리려는 다각적인 방안 모색

16명의 정직원과 시간강사 16명이 일하는 강서구국민체육센터는 지리적 여건상 다른 센터와 다른 점이 많다. 60~70대 어르신들이 주 회원인 타 센터와는 달리 직장에 다니는 30~40대가 주 회원이다. 타 센터는 오전 시간대는 수영장 강습으로 정원이 꽉 차는 편인데 강서구국민체육센터는 주로 어린 학생들이 많다. 낮 시간대를 활용해 찾아온 인근 초등학교에서 생존수영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때문이다. 강서구국민체육센터는 도서관과 보건소와 함께 위치했다. 1층은 수영장과 로비, 2층에는 사무실과 스트레칭 공간, 세탁실, 북카페와 회원들 심터가 자리했다. 3층은 배드민턴 등의 운동이 가능한 대체육관과 헬스장이 4층에는 GX룸이 있다.

“2013년부터 2015년까지는 구청에서 직접 운영했는데 경영 전문성도 떨어지고 적자 폭이 너무 크다 보니 이후 건강재단에서 수탁을 받아 운영했는데 마찬가지로 적자를 벗지 못했다고 하더군요. 이후 부산광역시체육회에 소속이 되면서 제가 왔는데 적자를 벗기 위한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는 데 주력했죠.”

우선 회원 수가 거의 없는 에어로빅과 같은 비효율적인 프로그램은 과감하게 없앴다. 또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서 정직원을 활용해 바다세이핑과 같은 몇몇 운동 프로그램을 신설, 토요일도 개설했다. 또 경전철과 1년 계약을 해서 지역주민 할인 20% 등 좀 더 적극적으로 센터를 홍보하는 데 주력했다. 본래 정원수를 훌쩍 넘어가면 인센티브를 적용해 강사들의 사기를 높이는 부분도 신경을 썼다. 불필요한 부분은 없애고 내부 인력을 활용하는 등 경영의 효율화를 이뤄 적자를 최소화하려고 애썼다. 그 결실은 분명 값졌다. 회원수가 2018년에 비해 221명 늘면서 흑자 경영으로 돌아선 것. 괄목할 만한 성과였다.



회원 관리, 방역에 더 철저히 신경 쓸 터

“정직원 16명 모두 제 맡은 바 역할을 충실히 했어요. 그 중 특히 칭찬해주고 싶은 회원은 센터에 들어서면 처음 만나는 안내데스크 직원인데 항상 웃음 띤 얼굴로 친절함을 보이며 강서구국민체육센터의 얼굴 역할을 톡톡히 했죠. 사람을 대하는 일이 정신적으로 참 피로운 업무인데, 직원을 모두 성심성의껏 회원들을 응대해줘서 고마울 따름이에요.”

코로나19 사태로 강서구국민체육센터 역시 3개월 정도 문을 닫았다가 지난 6월 1일(월) 문을 열었다. 요가나 필라테스 수업이 이뤄지는 스튜디오만 빼고 수영장과 헬스장 등은 정상 운영 중이다. 강서구국민체육센터와 연결된 건물 공간에 보건소가 있다. 센터가 문을 닫은 동안 방역을 철저히 해왔다. 아직 코로나19 사태가 종식된 게 아니기 때문에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회원들 건강과 안전 관리에 만전을 다할 생각이다.

구·군체육회

동구체육회 2020 생활체육교실



동구체육회는 지난 4월 21일(화)부터 6월 30일(화)까지 '2020 동구체육회 생활체육교실'을 실시했다. 수정산 가족체육공간 일대 40명이 모였다.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장기간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인 '2020 상반기 걷기 교실'은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은 어르신들이 느끼실 우울함, 갑갑함, 심리불안을 해소하고 체력증진 및 건강을 위해 2m 이상 방역거리유지, 마스크 착용, 시간대별 인원 제한 등의 사항을 준수하면서 야외운동을 할 수 있도록 추진방안을 검토해 병행 가능한 운동이자 동구 관내 거주자 성인 남녀 누구나가 참여 가능한 종목인 걷기와 국학기공운동으로 국민의 체력 증진 및 활기찬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생활체육교실을 개최했다.

영도구체육회 동삼테니스클럽 구장 점등식



영도구체육회는 지난 5월 5일(화) 저녁 7시에 영도구 동삼테니스구장에서 영도구청장, 영도구체육회장, 영도구테니스협회장 및 임원, 영도구 테니스클럽 회장 및 동호인들과 함께 점등식 행사를 진행했다. 야간에도 테니스를 즐길 수 있게 되었고 영도구체육회 회장과 함께 테니스 시합도 진행했다.

동래구체육회 동래주민들을 위한 건강체조 영상 제작 홍보 및 회원 배포



동래구체육회는 지난 4월 27일(화) 동래구 인공암벽장에서 동래구체육회 지도자 6명이 동래 구가인 '동래의 노래'에 맞춰 누구나 따라할 수 있는 건강체조를 제작해 동래구체육회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를 했다. 프로그램은 남녀노소 누구나 어디서든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스트레칭 및 체조를 구성돼 있다.

* 동래구체육회 유튜브 채널
(<https://www.youtube.com/watch?v=1EqMfLv2i6A>)

남구체육회 2020년도 제2차 정기이사회



남구체육회는 지난 5월 21일(목) 남구청 대회의실에서 남구체육회 회장, 남구청장, 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0년도 제2차 정기이사회'를 개최했다. 정기이사회에서는 2020년도 부산광역시남구체육회 행사일정을 보고했고 남구체육회 이사회 운영 규칙 개정(안), 남구체육회 사무국 운영 규정 제정(안), 남구체육회 사무전결처리 규정 제정(안), 남구체육회 사무국장 임명 동의(안)을 심의·의결했으며, 기타 토의에서는 부산광역시남구체육회 규약 및 임원 명단에 대해 토의를 했고, 회의가 끝난 후 식사자리를 가지며 2020년도 제2차 정기이사회를 마무리했다.

사하구체육회 제8회 사하구 볼링협회장배 생활체육볼링대회



지난 5월 31일(일) 사하구 장림동에 위치한 코스모스볼링장에서 제8회 볼링협회장배 생활체육볼링대회가 개최되었다. 120여 명의 볼링 동호인들과 많은 내빈들이 참석해 그 자리를 빛내주고 그 결과 1위 김병기, 2위 구상모, 3위 손병기 선수가 차지했다. 모두가 그동안 갈고 닦았던 실력을 보여주는 대회였다.

금정구체육회 2020년 정기총회



금정구체육회는 지난 5월 22일(금) 금정구청 3층 영상회의실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으로 2월 개최 예정이었던 '2020년 금정구체육회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정기총회 안건으로 2019년 사업실적 및 세입·세출 결산(안), 금정구체육회 이사해촉 및 미납회비 결손처분(안), 금정구체육회 규약 일부 개정(안), 금정구체육회 임원 선임(안)을 상정했다. 이후 간담회와 함께 금정구 체육발전과 생활체육저변 확대를 위한 담소를 나누며 행사를 마무리했다.

구·군체육회

강서구체육회 2020년 정기대의원총회



강서구체육회는 지난 3월 30일(월) 녹산동 용가든에서 대의원 31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0년 강서구체육회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기대의원총회에서는 체육시설 현황 체육동호인 단체 현황 생활체육지도자 현황 보고, 2020년 추진사업 및 예산(안) 보고, 2019년 추진사업 및 결산 및 특별회계보고, 2019년도 사업실적 및 예산결산 승인(안), 강서구체육회 임원 선임(안) 승인 건 등의 내용으로 회의를 진행했다.

사상구체육회 코로나19 극복 집콕! 건강체조, 코로나19 예방 보약 같은 어르신 체조 2종 제작



지난 4월 6일(월) 사상구청 1층 야외광장에서 사상구체육회 일반 지도자 3명, 어르신 지도자 3명이 참여한 '코로나19 극복 집콕! 건강체조, 코로나19 예방 보약 같은 어르신 체조 2종'을 제작해 사상구민들에게 사상구청 홈페이지 및 SNS로 보급했다.

거점스포츠클럽

거점스포츠클럽 2020년도 거점스포츠클럽 제2차 이사회 개최



지난 4월 24일(금) 부산체육회관 2층 대회의실에서 2020년도 거점스포츠클럽 제2차 이사회를 개최했다. 6명의 이사가 참석한 가운데 업무보고, 거제국민체육센터 직원 채용방침, 거점스포츠클럽 정관 개정, 2019년도 결산, 2020년도 예산 변경 등을 진행했다.

단신 뉴스

NEWS. 01

2020년 체육계열 학교 및 학교운동부 지원 사업 실시 - 훈련기기 구입 지원 등 과학적 훈련을 위한 여건 마련 -

대한체육회는 지난 3월 30일(월)부터 4월 28일(화)까지 '2020년 신규 공공스포츠클럽 선정 2차 공모'를 실시했다. 이번 공모는 지방자치단체, 체육전문단체, 대학교, 체육중·고등학교 등 교육단체, 프로구단, 체육관련 비영리법인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신청단체는 공공체육시설 등 안정적인 시설을 확보한 상태여야 한다.

신청서 접수 기간은 지난 4월 27일(월)부터 28일(화)이었으며 신청 단체를 대상으로 총 3단계(서류·발표·현장)의 평가를 실시한 후, 5월 25일(월)에 최종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선정된 단체는 '비영리법인 스포츠클럽'을 설립해 5년간 대도시형 최대 9억 원, 중소도시형 최대 6억 원을 지원 받는다. 공모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대한체육회 홈페이지(www.sports.or.kr)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한편 공공스포츠클럽은 지역 내 체육시설을 거점으로 다계층, 다연령대의 회원에게 다종목, 다수준 프로그램을 저렴한 비용으로 제공하는 지역 기반 스포츠클럽으로 현재 100개소 스포츠클럽이 전국에서 운영 중이다.



출처 : 대한체육회



단신 뉴스

NEWS. 02

대한체육회,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 체육현장 고충 간담회 개최 -

대한체육회는 지난 4월 8일(수) 회원종목단체 및 체육시설 관계자, 시도체육회장단, 공공스포츠클럽 관계자 등과 차례로 간담회를 개최하고 최근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에 따른 체육계 피해 현황 및 지원 대책 등을 논의했다. 이날 체육계 관계자들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고충을 토로하며 정부 차원의 행정·재정적 지원을 요청했다. 실제로, 정부 권고에 따라 무도장, 무도학원, 체력단련장, 체육도장 등 집단감염이 우려되는 실내 체육시설이 한시적으로 운영을 중단한 상태이며 100여 개 공공스포츠클럽을 비롯해 많은 체육기관과 시설들도 휴장에 들어갔다. 체육시설 및 공공스포츠클럽 관계자들은 체육기관과 시설들에 대한 민간부분의 자발적 임대료 인하, 세제혜택 등에 대한 조치를 요청했다. 아울러 체육 관련 행사 취소·연기 등으로 발생하는 불용 예산을 체육 부문에 투입해 줄 것을 희망하면서 체육활동을 해야 면역력이 증대돼 코로나19 극복에 도움이 된다는 점을 감안해 발열체크·방역 등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체육시설에 한 해 과도한 제한 완화 등 체육시설 종사자들의 생계를 위한 국회와 정부 차원의 세심한 지원책 마련을 호소했다.

이 밖에도 체육회와 각종 체육단체 관계자들은 코로나19로 인해 연기 또는 취소된 종목별 국내외 대회 현황과 대안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2020도쿄올림픽대회 연기에 따른 특별대응팀(TF) 설치와 선수단의 사기와 경기력 유지 등을 위한 훈련지원 방안, 출전권 확보 노력 등 연기된 올림픽대회 일정에 따라 긴밀한 대응 체계를 이어가기로 했다. 간담회에서 대한체육회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체육인들의 고충에 대해 함께 의견을 나누며 체육계가 할 수 있는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과 연계한 실내운동 프로그램 개발 및 캠페인 전개 등으로 국민 모두와 함께 위기를 헤쳐 나가자고 당부했다.



출처 : 대한체육회



NEWS. 03

국가대표 선수와 함께 '집콕운동'으로 건강 지켜요 - 국가대표 선수가 알려주는 종목별 홈트레이닝 방법 -

대한체육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야외 체육 활동이 어려워진 국민들을 위해 국가대표 선수들과 함께 '집콕운동' 캠페인을 진행한다. 대한체육회는 최근 2020도쿄올림픽대회 연기에 따라 각자 집에서 휴식과 재충전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국가대표 선수들이 어떤 모습으로 '집콕생활'을 하고 있는지 만나보고 그들만의 독특한 '집콕운동' 방법을 대한체육회 유튜브(채널명 대한체육회TV)를 통해 공개했다.

※ 대한체육회TV 유튜브 링크 : <https://www.youtube.com/channel/UCXU3UhTVOX7w6NhQpzeEeJQ>

국가대표 선수들은 국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해당 종목 맞춤형 중심(코어) 운동법을 소개하고 국민들에게 "집콕운동으로 나와 우리 모두의 건강을 함께 지켜요"라는 응원의 메시지를 전달한다. 국가대표 선수들의 집콕운동 영상은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 기간 중 대한체육회 유튜브 채널에 꾸준히 제공될 예정이다.

'집콕운동'은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과 국민 건강을 위해 문화체육관광부·대한체육회·국민체육진흥공단이 함께 추진하는 캠페인이다. 대한체육회는 '국가대표와 함께하는 국민체조'를 비롯해 집에서 쉽게 따라할 수 있는 '고무장갑을 이용한 틈새운동' 등 흥미로운 온라인 체육 콘텐츠를 제공해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다. 앞으로도 체육회는 스포츠 셀럽과 함께 하는 '1분 집콕운동' 등 다양한 홈트레이닝 방법을 담은 콘텐츠를 국민들에게 제공할 예정이다. 아울러 제작된 콘텐츠는 교육부를 통해 각급 학교에 전달해 학생들의 온라인 수업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체육단체(회원종목단체, 시도 및 시군구체육회, 공공스포츠클럽 등)를 통한 지역 내 온라인 홍보, 스포츠 지도자를 통한 안내문 배포·온라인 링크 전달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유아부터 어르신까지 보다 많은 국민들이 해당 콘텐츠를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할 계획이다.

출처 : 대한체육회



단신 뉴스

NEWS. 04

대한체육회 스포터즈(제5기 명예기자단) 온라인 화상 발대식 개최

대한체육회는 지난 4월 13일(월) 오후 4시 올림픽문화센터 2층 대회의실에서 '대한체육회 스포터즈(제5기 명예기자단)' 발대식을 가졌다. 발대식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온라인 화상회의의 참여 방식으로 진행했다. 대한체육회는 올해 5기를 맞이하는 명예기자단의 새 이름 '스포츠(Sporters)' 31명을 선발했다. 지난 3월 18일부터 3월 31일까지 대상자를 모집했으며 총 305명의 지원자 중 활동경력, 전문 및 활영능력 등을 평가해 최종 31명을 선발했다. 스포터즈는 지난 4월 13일 발대식을 시작으로 12월까지 전국 각 지역의 스포츠 현장에서 활동하게 된다. 당초 발대식은 모두가 모인 자리에서 위촉장 수여와 함께 전문가 강연을 진행할 계획이었으나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온라인 화상회의의 참여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발대식에는 스포터즈 대표자 2명이 참석해 위촉장을 받았다. 이날 참석한 박지란(59세)은 "스포츠로 선발돼 기쁘다"면서 "가장하고 싶은 일이었다고, 여러 대회에 직접 참가하면서 영상 등을 제작해 스포츠7330 홍보 활동을 열심히 해나갈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발대식에 참석한 대한체육회 김승호 사무총장은 "스포츠에 관심이 많은 우수한 인재를 만나게 돼 기쁘고 마음이 든든하다"면서 "생활체육 '스포츠7330' 캠페인은 물론 스포츠 인권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주기 바라고 국민들이 스포츠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높일 수 있도록 여러분이 열심히 활동해 주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한편 스포츠에 관심 있는 사람들의 네트워크인 '스포팬-넷(Spofan-Net)'은 네이버카페(cafe.naver.com/spofannet) 가입 신청을 통해 연중 수시로 모집하고 있다. 스포팬-넷 회원은 지역 내 스포츠 정보나 개인의 스포츠 참여 활동을 자발적으로 게시하고 대한체육회 스포츠 정보 및 콘텐츠의 온라인 홍보 역할을 맡는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을 네이버카페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출처 : 대한체육회

NEWS. 05

전국 45개 공공스포츠클럽 단계적 운영 재개

-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됨에 따라 지역체육시설 일부 재개방 -

코로나19 확산으로 지난 2월부터 운영이 중단되었던 공공스포츠클럽이 단계적으로 운영을 재개한다. 공공스포츠클럽은 대한체육회와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원을 받아 지역 주민에게 다양한 체육 프로그램을 저렴한 비용으로 제공하는 지역 기반 스포츠클럽이다. 지난 5월 6일부터 기존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정부 지침이 전환됨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별 상황을 고려해 운영 중단되었던 공공체육시설의 문을 열기 시작했다.

공공스포츠클럽별 휴관 현황이나 수업 안내문, 가까운 스포츠클럽 찾기 등은 대한체육회 스포츠클럽 종합정보시스템 사이트(sportclub.sports.or.kr)에서 확인 가능하다. 이일재 전국스포츠클럽협의회 회장은 "단계적 운영 재개는 공공스포츠클럽에게 단비 같은 소식이나 지역 내 코로나19 재발 우려 등 걱정이 큰 것도 사실이다. 그래서 운영이 재개되는 공공스포츠클럽은 정부의 '생활 속 거리두기' 세부 지침을 철저히 준수하면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대한체육회는 공공스포츠클럽 단계적 운영 재개를 통해 그동안 외부 활동을 하지 못했던 국민들이 체육 활동을 통해 건강을 되찾고 위축된 지역 사회의 분위기를 보다 활기차게 전환시켜 줄 것으로 기대한다.

출처 : 대한체육회

NEWS. 06

대한체육회 제1기 청렴코치 발대식 개최

- 직원들과 함께 '깨끗한 스포츠, 청렴한 체육회'를 위해 노력 -

대한체육회는 기관 내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5월 26일(화) 올림픽문화센터 대회의실에서 제1기 '청렴코치' 발대식을 개최하고, '제1차 반부패실무추진반 회의'를 열었다. 체육회는 최근 기관 청렴도 평가 결과 외부 청렴도 취약 및 반부패 정책 확산 노력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청렴코치'로 구성된 '반부패실무추진반'을 운영해 다양한 반부패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제1기 청렴코치는 각 부서에서 추천받은 직원 23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청렴코치들은 반부패실무추진반의 일원으로 직원이 체감하는 반부패 사항에 대해 청렴 정책을 수립·시행을 지원하게 된다.

체육회는 청렴코치와 함께 청렴골든벨, 월별 청렴 퀴즈대회, 청탁금지법 위반 모의신고 훈련, 부서별 청렴의 날 활동 등 다양한 이벤트를 개최하고 반부패 청렴 및 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한 참여 분위기를 조성해나갈 계획이다. 또한 갑질 예방 교육을 통해 조직 내 부당한 업무지시를 근절하고, 내부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혁신 제안 공모전도 실시할 예정이다. 반부패실무추진반으로 위촉된 제1기 청렴코치들은 "향후 지속적인 활동을 통해 청렴 관련 건의를 하고 서로의 의견을 함께 모아 조직 내 청렴문화 확산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소감을 밝혔다. 체육회는 청렴코치 제도 도입을 통해 부패 방지를 위한 체계를 구축하고 기관 내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전사적인 추진력을 확보해나갈 방침이다.

출처 : 대한체육회



단신 뉴스

NEWS. 07

국민체육진흥공단, 체육지도자 필기시험 7월 시행

- 2급 필기시험 원서 6.4(목)~6.12(금) 접수, 1·2급 필기시험 7.4(토) 시행
건강운동관리사 필기검정 7.23(목)~7.31(금) 접수, 8.29(토) 시험 시행 예정 -

국민체육진흥공단은 코로나 19의 전국적인 확산으로 두 차례 연기되었던 2020년도 1·2급 전문·생활·장애인스포츠지도사 필기시험을 오는 7월 4일(토) 시행한다. 2급 스포츠지도사(전문·생활·장애인·유소년·노인) 필기시험 원서접수 일정은 지난 6월 4일(목)부터 6월 12일(금)까지였다. 지난 3월에 1급 스포츠지도사 원서를 접수한 응시자는 별도의 접수 절차 없이 필기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건강운동관리사 필기시험 원서접수 기간은 7월 23일(목)부터 7월 31일(금)까지이다. 필기시험일은 8월 29일(토)이다. 공단은 전국 5만 명에 달하는 수험생의 안전을 위해 철저한 방역대책을 마련했다. 시험 전·후 시험장을 소독하며, 고사장별 수용인원을 대폭 축소해 응시자 간 거리를 대폭 넓힐 예정이다.

모든 응시자는 고사장 입장 전 발열검사와 손소독제 사용이 필수이며 항상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이상체온 및 호흡기 증상 등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되는 응시자는 즉시 감염병 관리 전담자의 문진 후 별도시험실에 배정하거나 관할 보건소로 이송된다. 시험 관련 보다 자세한 내용은 체육지도자 홈페이지(www.insports.or.kr) 시험공고/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단 관계자는 “이번 자격검정은 대규모 인원이 참여하는 만큼 수험생 분들께서도 반드시 검정기관의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준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며 “안전하고 원활한 시험운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 국민체육진흥공단



NEWS. 08

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 개원 40주년 기념행사 개최 및 제19회 체육과학연구상 시상 '미래 한국 스포츠를 선도하는 종합연구 플랫폼' 비전 발표 면역력 강화 및 체력 유지 위한 비대면 생활체육 서비스, 국가대표 경기력 유지, 스포츠산업체 지원 등 코로나19 관련 체육계 대응방안 연구·발표 -

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은 지난 5월 25일(월) 개원 40주년을 맞아 기념식과 함께 제19회 체육과학연구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최윤희 문화체육관광부차관, 안민석 국회의원, 이기홍 대한체육회장을 비롯한 체육계 및 유관기관 인사의 축하영상 상영, 과학원 개원 40년사 헌정, 비전선포, 제19회 체육과학연구상 시상식 순으로 진행됐다. 조재기 이사장은 축사를 통해 임직원들에게 내년으로 연기된 도쿄올림픽에서 대한민국이 선전할 수 있도록 스포츠 과학지원에 만전을 기할 것과, 체육 분야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응하는 비대면·온라인 중심의 생활체육 보급을 통한 면역력 및 체력 강화, 온라인 전문체육 지원체계 마련 및 방역 강화, 스포츠산업체 자금 지원 등 체육계 전반에 대한 공단의 역할을 고민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서 정영린 과학원장은 개원 40년 기념 비전인 '미래 한국 스포츠를 선도하는 종합연구 플랫폼을 선포했으며 △시의성 있는 스포츠현안 지원기능 강화 △스포츠 통계정보의 체계적 생산 △미래를 선도하는 선제적 정책 연구 등 국민의 행복을 위한 스포츠과학지원을 통해 40년을 넘어 100년을 향해 달려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제19회 체육과학연구상 시상식'에서는 서울대학교 서재철 교수의 논문인 '스포츠다큐드라마 연구를 통한 체육·스포츠역사학의 확장'이 대상을 수상했다. 최우수상에는 대한레슬링협회 노재현 국가대표팀 레슬링지도자의 '특이적 웨이트 트레이닝이 국가대표 레슬링 자유형 선수들의 근기능에 미치는 영향'이 선정됐다.

우수상 2편에는 한국체육대학교 김동원 석사의 '트레드밀 운동과 MitoQ 처치가 D-galactose로 유도된 노화 쥐의 혈관기능에 미치는 영향'과 경산고등학교 김상진 교사의 '통합체육수업의 수업 내용에 따른 지적장애학생과 비-장애학생의 중·고강도 신체활동 비교분석 : 3차원 가속도계를 활용한 순차적 혼합연구'가 선정됐다. 한편 국가대표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을 위해 1980년에 설립된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은 지난 40년간 스포츠과학·정책·산업을 연구·지원하는 국내 유일의 스포츠 싱크탱크로 발전해 왔다.

출처 : 국민체육진흥공단

The Best Steel For The Better Company

세계적 수준의 기술력과 고객을 위한 서비스 정신으로
세계 최고의 글로벌 기업으로 발돋움 하겠습니다.



TRANSFORMING FUTURE
[주] 화인베스텔
경남 창원군 창녕읍 하리 25-1
Tel: 055-259-2000 Fax: 055-259-2020
<http://www.finebesteel.com>



TRANSFORMING FUTURE
[주] 화인인터네셔널
부산시 사상구 광장로 10 화인빌딩 15층
Tel: 051-796-7000 Fax: 051-796-7069
<http://www.ficorea.com>



TRANSFORMING FUTURE
동일철강 [주]
부산시 사상구 학장동 716-1
Tel: 051-322-1177 Fax: 051-326-5655
<http://www.dongilsteel.com>



모든 프리미엄 피자

방문 포장 시
40% 할인

얼티밋

넘쳐 흐르는 치즈를
포켓에 콕콕 담았다!

치즈포켓



진영푸드주식회사



케이블카 그 이상의 즐거움!

송도해상케이블카 부산에어크루즈

볼수록 새로운 바다! 갈수록 색다른 재미! 탈수록 즐거운 송도해상케이블카
하늘과 바다를 가로지르는 감동, 생생한 테마와 즐거움을 경험하세요!



문화와 즐거움이 가득한 오션 테마파크!

송도해상케이블카 부산에어크루즈
공통과 사진찍고, 소원도 빌어보고, 짜릿한 VR체험까지!
즐겁고 색다른 문화 컨텐츠가 눈 앞에 펼쳐집니다

문의 051) **247-9900**



시공능력평가 부·울·경 1위 건설기업

주거문화 및 레저산업을 선도하고 교육보국을 실천하는 신용의 기업

동원 100년을 새롭게 만들어 갑니다!

재건축, 재개발, 도시재생 사업에도 적극 참여합니다.
동원이 「DREAM WORK」 브랜드로 공유오피스 사업을 함께합니다.



기업신용평가 AAA등급
코스닥 상장 우량기업

국내 최초 주택산업분야
금탑산업훈장 수훈

포브스 선정
아시아 200대 유망기업

주택건설 44년
7만여세대 공급

동원개발그룹



대표이사 / 회장 **장복만**